

9 2023 VOL. 327

haninnewsinni@gmail.com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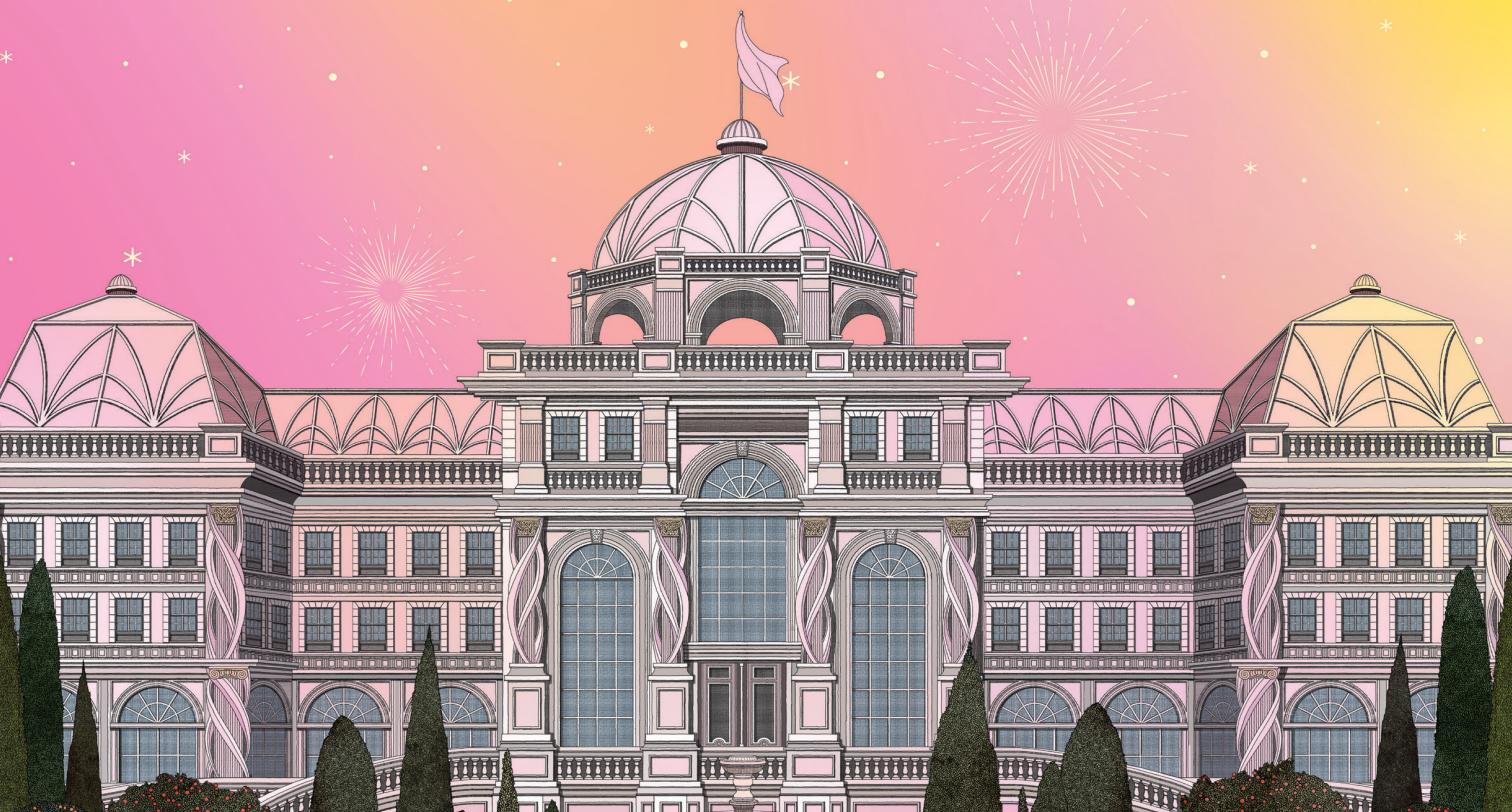
SMTOWN LIVE 2023

SMCU PALACE @JAKARTA

23.09.23

6:30PM^{WIB} AT GBK

TVXQ! SUPER JUNIOR Red Velvet
NCT 127 NCT DREAM WayV aespa
SM NEW BOY GROUP



SPONSORED by



Unleash the X in you.

Hyundai STARGAZER X 출시



새로운 대시보드 디자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및 오토홀드



현대 블루링크
(커넥티드 카 서비스)



현대 스마트센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 가격 및 기타 상세내용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참조





A LUXURIOUS HOME IN SOUTH JAKARTA

Located in the heart of south Jakarta with unrivaled views of this prestigious district, the residences are perfect for both business and leisure with its elegant one to three bedroom apartments and four bedroom penthouses, delivering an unprecedented lifestyle choice in the capital for short-term and extended stays.

The property is connected to the InterContinental Hotel Jakarta Pondok Indah, premium shopping malls, office towers and is strategically located within minutes to excellent healthcare facilities, international schools and a world-class golf course.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 and to schedule a tour
T. 021 3950 7355 E. sales.icjakarta@ihg.com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월간 한인뉴스 9 2023



표지: 한-인니 수교50주년 기념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흥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포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8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한-인니 수교 50년사’ 인니어판
책 출판에 즈음해

10

제 78주년 광복절 경축식

11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골프대회

14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릴레이 체육대회

18

[김재훈의 ‘세무 TALK’]
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비(장학금)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20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contents

2023. 9. 통권 327호

24		42		57
나의 암바라와 3 〈이태복〉		[행복에세이] 승리의 도시, 자야카르타 〈최하진〉		신인작가의 등용문, 제5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개최
26		45		58
[여기가 맛집] LAC MEI CHE 〈황지영〉		[반려동물 랜선집사] '새로운'의 새로운 삶 〈김준서〉		자카르타 한글학교
29		46		60
찾아가는 문화원, 〈SMPK 5Penabur〉 개최		나의 이야기 〈신영덕〉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황다인〉
30		50		62
[떠나야 보이는 것들] 자카르타에서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손예리〉		[루이사의 힐링 공간4]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들의 이야기: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25)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3) 〈이승민〉
32		52		65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1]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부모님, 인도네시아 한달 살아보기 체험 〈E.T.KIM〉		인도네시아 한국어 한국문화교육의 도전과 과제 학술회의 개최
36		54		66
[서상영의 한방칼럼4] 다양한 정신질환		비대면 디지털 시대의 한류 콘텐츠로서의 연극 〈조연숙〉		표준 인도네시아어를 통해 본 “다양성 속의 통합” 〈박승현〉
				68
				생활정보



‘한-인니 수교 50년사’ 인니어판 책 출판에 즈음해



논설위원 신성철

“

이 책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을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은 낯선 존재이다. 한국인은 중국인, 아랍인, 인도인, 일본인, 네덜란드인 등 인도네시아인이 접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르다. 바쁘게 움직이고 큰 소리로 말하고 허리를 꽂꽂이 세우고 힘차게 걷는 사람들. 흥이 많아서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술도 잘 마신다. 정이 많아서 마음을 잘 주면서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 화도 잘 낸다. 기독교, 불교, 유교 등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이슬람신자는 드물다. 한편 한국인에게도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인은 낯선 존재이다. 1년 내내 푸른 잎이 무성한 여름만 있는 날씨와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영토, 한국보다 느린 움직임, 이슬람 문화 등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환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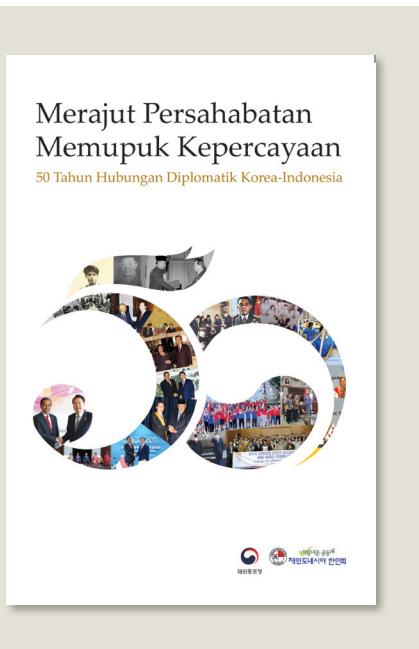
“한국인이세요?, 왜 ·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 투자가 늘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한국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 유학을 가거나 취업하고 싶어 하는 인도네시아인도 많다. 이 책이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을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제인도네시아한인회는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를 편찬하면서, 인도네시아 한인 1호로 장윤원 선생을 선정했다. 장 선생은 3 · 1운동 당시 고국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할 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다가 발각돼 중국을 거쳐 1920년 인도네시아로 망명했다. 이후 장 선생은 일제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했을 때, 옥살이를 하는 고초를 겪었다. 해방 직후 석방된 장 선생은 징용 피해자들을 돋고 귀국선을 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이 설립된 후 인도네시아에 온 한국인들은 경제적으로 기회를 얻기 위해 바다를 건넜다. 사람들은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등 우리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얹혀 있는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로 오고 한국으로 간다.

<Merajut Persahabatan Memupuk Kepercayaan>(의역: 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이라는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년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외교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쳤는지,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에 관한 기록이다. 이 책은 1장 외교, 2장 경제 · 비즈니스, 3장 한국인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시기별로 다시 구분했다. 한국인 부분은 한인회, 한국학교, 한인 단체 등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이 책은 순서대로 읽어도 되지만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어도 된다.

1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관계 발전 단계에 따라 태동기, 초창기, 발전기, 제1차 성숙기, 제2차 성숙기 등 다섯 단계로 나누었으며, 각 시기별 챕터 서두에 시대적 특징을 요약하여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장도 시기별로 지난 50년간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시기와 산업을 살펴봄으로써 양국의 경제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맞물려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성장, 안정적인 정착의 반세기는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가진 한국인의 도전 정신을 통해서 일구어낸 값진 시간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발판을 마련해 준 우방국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관련돼 ‘최초’ ‘1호’ 수식어가 붙은 역사가 많다. 1968년 ‘한국 해외 투자 1호’ 한국남방개발(KODECO)의 원목 개발 사업, 1973년 ‘한국 해외 생산 플랜트 수출 1호’ 인 대상(당시 미원)의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건설, 1981년 ‘한국 최초 해외 유전 개발 사업’ 서마두라 유전 공동 개발, 1992년 우리나라 대외 무상원조 기관인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1호 설치 국가. 한국이 만든 고등 훈련기 T-50과 잠수함을 가장 먼저 사준 국가이다.



3장도 시기별로 한인회와 한인 단체, 정부 기관, 한국학교 등을 통해 한인사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했고, 한인들의 생활을 살피고 현지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모습도 담았다. 다만 이 책은 한인회 주관으로 진행된 만큼 한인회와 한국대사관의 기록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좀 더 다양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책의 집필을 위해 여러분이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필자와 데일리인도네시아 조연숙 편집장이 양국 관계 50년사를 기간별로 체계적으로 알기 쉽고 알찬 내용으로 엮었다. 한글 원고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한 민선희 작가와 인도네시아인 편집자, 꼼꼼하게 감수를 해주신 김문환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대표 집필자와 수라이 아궁 누그로호 가자마다대학교 한국문화학과 교수 그리고 행정 절차와 편집에 애쓰신 최인실 한인회 사무국장과 홍석영 한인뉴스 편집장 등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고하셨다.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수교 반세기를 맞았다. 양국이 외교와 국방, 경제와 비즈니스에서 떼려해도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한국인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인도네시아에 관심과 애정이 크고, 인도네시아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인도네시아인과 어울려 살면서 한국인이지만 인도네시아의 구성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현지에 사는 한국인을 인도네시아의 구성원으로 인지해 주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하고 우정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끝–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한인회가 주최하는 제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대사관 강당에서 열렸다.

윤석렬 대통령의 경축사를 대독한 이상덕대사는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하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

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이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우리 한국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에 발판이 되어준 기회의 땅이 되었고, 한인들은 반세기동안 한국인 특유의 도전 정신으로 지금의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러 3만명의 인도네시아 한인동포가 자리매김을 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문화를 주도하는 이 시점에도, 우리의 정체성과 국가 발전의 바탕에 조상들의 고군분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힘찬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의 외침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골프대회

인도네시아 한인들에게 의미있는 8월 15일 광복절 날,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골프대회를 Damai Indah(PIK)에서 개최하였다.

주인니 한국 이상덕 대사와 Djasri Marin 전 육군 헌병사령관, 한인회 임원 및 각계 인사들, 특히 인도네시아 프로지망 청소년 골프 선수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박재한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곳에 정착한 인도네시아한인들은 기회의 땅이 되어 준 인도네시아를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를 지속함에 새삼 뿌듯하다. 이제 그간의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이 함께 도약하길 기대” 한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180명의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이상덕 대사는 “세계의 어느 한인사회보다 화합하고 모범적인 인도네시아한인사회가 자랑스럽다”며



박재한 한인회장



골프대회 후원사

9월 18일, 수교50주년 기념리셉션을 시작으로 24일까지 계속되는 콘서트 전시 등의 코리아위크 기념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대회 결과로는 Medalist는 김종현, Winner A는 이근대, Winner B는 장용원, Winner (여)는 변진이 차지했다.

여러 한인단체와 협회의 후원이 함께 한 저녁만찬에는 가수 홍동균의 발라드 무대와 한국과 인도네시아 혼합 K-POP댄스팀 'ISME' (지도 이은주 LEEJ DANCE STUDIO)의 신나는 댄스, 한인사회에 알려진 한인동포의 개인 노래자랑과 행운권 추첨이 이어졌다.



Medalist 김종현



Winner A 이근대



Winner B 장용원



Winner (여) 변진



인도네시아 프로지망 청소년 골프 선수들



Djasri Marin 전 육군현병사령관,



이상덕 대사



이승아



베스트 포즈상: "언니, 오늘 괜찮겠수?"



"우리는 힙하게!"



가수 홍동근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우정의 릴레이(배드민턴& 축구) 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Hari Kemerdekaan),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우정의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5일 골프대회에 이어 양국의 50년 우정을 상징하는 인니인 초청 대한체육회 배드민턴협회(회장 김종희)와 축구협회(회장 오혁진)가 주관한 체육대회로 화합과 조화가 빛을 더했다.

‘국악사랑’ (단장 장방식)의 사물놀이와 한-인니 혼합 K-POP댄스팀 ‘ISME’ (지도 이은주 LEEJ DANCE STUDIO)의 공연으로 흥겨운 시작을 알렸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미래의 50년도 지금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좋은 친구로 그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 양국의 도약을 기원하며 힘차게 서로를 응원하길 바란다”고 선수들과 함께 온 가족과 친구들을 맞이했다.

배드민턴경기는 리그전 남자 여자 각각 한인과 인니인(총 60명)이 복식 한 조를 이뤄, 조당 3 게임의 예선을 치러, 조 1위가 토너먼트에 올라 준결승과 결승을 겨뤘다. 결과는 여자 복식 한혜정, Fira 조와 남자 복식 박덕진, Tanto조가 우승을 남자



복식 최상림, Anil 조, 여자 복식 김은주, Michelle 조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축구경기는 인도네시아팀인 Bintang FC, Per-saudaraan FC와 한국팀인 재인니 한인연합팀, 전국체전 선발팀이 출전하여 재인니 한인연합팀이 준우승을, 전국체전 선발팀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배드민턴 선수로 출전한 Astra Hendru씨는 “양국의 관계가 50년 동안 친구처럼 좋았기에 더 기쁘다. 다음에도 이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바리또에 거주하는 심영연 주부는 “아들 셋 중 둘이 각기 다른 팀에서 선수로 뛰어 ‘형제의 난’ 이지만 열심히 응원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JKS의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열정을 다해 경기에 임한 한-인니 양국의 선수들의 모습과 그들을 응원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함성이 50년의 우정을 보여주는 뜻있는 행사였다.

의료지원: K-LAB(의료팀 및 앰뷸런스)





우승: 여자 복식 한혜정, Fira조



우승: 남자 복식 박덕진, Tanto조



우승 전국체전 선발팀



국악사랑



ISME



의료지원: K-LAB



“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비(장학금)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 PMK 68/2020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2023년 6월 27일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PMK 66/2023이 공표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회사가 직원 개인에게 제공되었던 아파트, 편의시설 등 현물과 음식, 골프멤버십 등 향응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회사가 개인 급여 등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조세조화법 (HPP) 제 4조 (3)항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학금은 소득세 부과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PMK No. 68/PMK/03/2020 규정하고 있다.

제 2조 2항에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장학금 수혜자는 인도네시아 시민권자(WNI) 이어야 한다.

둘째, 국내 및/또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정규 교육 및 비정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기 특정 요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 a. 장학금 수여 기관의 납세자는 비즈니스 관계, 소유권 관계 또는 통제 관계의 경우
- b. 장학금 수여 기관 납세자는 소유주, 감사, 이사 또는 관리자가 혈연 또는 직계 및/또는 1촌의 혈연 관계인 경우
- c. 장학금을 수여하는 개인 납세자와 사업관계가 있는 경우

위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리해 보면

장학금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외국인 직원 (WNA)	소득세 과세
내국인 직원 (WNI)	소득세 비과세
경영진 또는 경영진의 자녀	소득세 과세

결국 외국인 직원(WNA)과 회사 경영진에 제공되는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끝>

수교 50주년 기념,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 성황리에 개최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대사 이상덕)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하여 8월 11일 꾸닝안에 위치한 찌푸트라 아트프리뉴어 극장에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 'Great Taekwondo, Hi Kick!'을 개최했으며, 현지관객, 교민 등이 참석해 태권도의 매력에 환호했다.

이번 공연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용운)이 운영하고 있는 브카시 특수학교 태권도 교실 수강생들의 시범을 시작으로, 현지인 사범들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선보여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국기원 시범단의 절도 있는 동작과 묘기에 가까운 격파 시범에 관객들은 크게 환호했으며, 공연 후 시범단과 사진을 찍기 위해 오랜시간 기다리는 등 이번 공연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공연은 인도네시아 내 태권도 저변 확대와 함께 양국 문화교류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공: 한국문화원)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정치, 사회>

“개통한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 알아야 할 7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 (LRT)이 지난 8월 28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통됐다.

브까시와 보고르 등 위성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도권 경전철이 개통됨으로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이용하던 일부 운전자들이 경전철을 이용함으로써 수도권에 교통체증 해소와 대기 오염을 경감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수도권 경전철 관련 7가지 포인트를 짚어 보았다.

1. 총 18개 역: 자카르타 두꾸아파스역 (Stasiun Dukuh Atas)~찌부부르의 하르자묵띠역 (Stasiun Harjamukti)을 연결하는 찌부부르 노선과, 두꾸아파스역~브까시 자띠물리아역 (Stasiun Jati Mulya)을 연결하는 브까시 노선 등 2개 노선으로 총 18개 정거장에 정차한다.

2. 두 종류의 역 : 두 종류의 역이 있다. 짜왕역과 같은 1개 환승역과 17개 일반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짜왕역의 1층은 출입구와 상업시설, 2층은 승강장, 3층은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역의 1층은 출입구, 2층은 승강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경전철 요금 : 개통 기념으로 승차요금을 할인해 오는 9월 말까지 5,000루피아로 일괄 적용한다. 이후, 기본요금은 5,000루피아이며, 1km 당 700루피아의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4. 요금 결제 : 현금 결제로 승차할 수 없다. 경전철 카드 또는 multi trip KAI Commuter, Qris, LinkAja 및 Kai Pay 등 카드로 승차할 수 있다.

5. 운행 시간 및 승차 수용능력 : 운행시간은 05:00~23:30시까지이다. 총 6량으로 편성된 경전철 열차는 31개 열차가 운행 준비를 마쳤으며, 각 열차마다 최대 1,300명이 탑승할 수 있다. 평일 열차가 모두 가동되면 하루 최대 434회를 운행할 수 있다.

6. 환승 시스템 : 경전철은 버스웨이, 도시철도 (MRT) 및 통근열차와 연결되도록 통합 운영되고 설계되어 있다.

7. 무인운전 시스템 : 경전철은 기관사 없이 (Driverless) 운행되는 무인운전 시스템이다. 모든 운행 및 차량 상황은 양방향 무선통신 열차제어 (CBTC) 방식을 기반으로 종합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자동 조정·제어된다.

서부자바 수까부미 지역, 짜곰봉~찌바닥 구간 톨구간 개통

서부자바주 수까부미 지역의 짜곰봉 (Cigombong)~찌바닥 (Cibadak) 지역을 연결하는 11.9km 고속도로 구간이 지난 4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통됐다.

이날 개통식에 참석한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카르타에서 수까부미까지 자동차로 5~6시간 걸렸는데, 투입이 개통되면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게 됐다”며 “빨라부안 라뚜 해변, 지

질공원 찔레뚜, 구눙 거데 등지를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고 썼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어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 지역에 투자가 늘어나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통된 짜곰봉~찌바닥 구간은 지난 8월 7일부터 일반차량의 통행이 허용됐으며, 8월 2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쁘라보워, 유리한 대선 고지 점령... 조코위, 메가와티와 충돌 조짐



민족주의 성향의 골까르당(Golkar)과 이슬람 성향의 국민수권당(PAN)이 블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Grindra) 총재를 2024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8월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현 국방장관인 블라보워가 내년 2월 14일로 예정된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다. 블라보워를 지지하는 정당은 자당인 그린드라당, PKB(국민각성당), 골까르당 및 PAN 등 총 4개 정당으로 늘어나면서 의석수 기준으로 41.4% 지지율을 확보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자카르타 독립선언박물관에서 열린 4개 정당대표 회동에서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골까르당 대표이자 현 경제조정장관인 “그는(블라보워) 평등주의를 공유해왔고 골까르당과 같은 길을 걸어왔다”며 “인도네시아가 중진국 함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금 (블라보워가) 가장 적합한 지도자이다”라고 밝혔다.

줄끼플리 하산 PAN 대표이자 현 무역장관은 “PAN 지도부는 숙고한 후, 변함없이 블라보워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스 피트리아디 정치전문가는 골까르당과 PAN이 블라보워를 지지함에 따라 간자르 블라보워 중부자바 주지사를 후보로 지명한 투쟁민주당(PDIP)을 크게 앞지르게 됐다고 촤평했다.

수꼬 위도도 아이르랑가대학교 정치학자는 골까르당과 PAN이 블라보워를 지지함에 따라 결선투표 없이 한번에 선거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투쟁민주당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골까르와 PAN이 블라보워를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과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 총재 간 불화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메가와티 총재가 지난 4월 21일 간자르 중부자바 주지사를 자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발표한 이후, 조코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은 블라보워와 여러 차례 회동하면서 블라보워 지지를 암시했다.

하지만 투쟁민주당 소속인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는 만큼 내년 대선의 킹메이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조코위는 전국적인 강력한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대선 후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날 블라보워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조코위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 현 정부가 인도네시아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을 인정하고 번영된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초를 더욱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선은 정당 간 정치적 연합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러닝메이트 등 후보 인물에 비중이 큰 만큼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을 아직 예단하기에 이르다.

“신수도에 VVIP 공항 건설... 내년 완공 목표”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이 한창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에 접근성을 위해 ‘VVIP(최상위 귀빈) 공항’ 건설이 시작됐다고 8월 20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VVIP공항은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가 위치한 동부칼리만탄 주 빠나잠 빠세르 우따라 군 빠나잠 면에 건설되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설계가 시작된 VVIP 공항이 완공되면, 동부칼리만탄에는 빨리빠빠 시에 스詈간 국제공항과 주도인 사마란다에 뉴사마란다 국제공항 등 총 3개의 공항이 가동되게 된다.

신도시 누산타라 내에 위치될 VVIP공항은 스詈간공항에서 25km, 뉴사마란다공항에서 107km 떨어져 있다. VVIP공항은 칼리만탄 문화의 특성

을 살려 미학적이고 친환경 공항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싱가포르를 실무방문했을 때, 누산타라에 VVIP 공항 건설을 공식 발표했다. 관련 부처인 공공사업주택부가 사업을 시행하고 교통부가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VVIP 공항 건설 관련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VVIP공항은 특수 목적으로 건설되며 공무용으로 사용된다. 또 토지 문제는 정부가 분할하고 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에 신수도 이전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신수도 누산타라를 선언하다는 계획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코위, 내년에 신수도 건설 예산 40조 루피아 과격 배정

신수도 1단계, 내년 7월 완공 목표… 8월 16일 현재 공정률 30%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내년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 건설 비용으로 40.6조 루피아(26억 달러)라는 과격적인 금액을 배정했다. 앞서 신수도 건설을 위해 2022년에 5.24조 루피아와 2023년에 26.72조 루피아를 각각 배정했다. 40.6조 루피아 가운데 86%인 35조 루피아가 공무용 ‘VVIP 공항’ 건설을 포함한 필수 인프라 건설 사업에 배정됐다. 나머지 예산은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사용된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국회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 8월 17일 독립기념일 행사를 신수도에 성대하게 치를 것이라고 밝히면서 신수도 건설 예산안 등 내년 국가 예산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에 대통령궁, 대규모 행사용 광장, 4개 조정장관 청사, 국가사무처, 공무원·군인·경찰 등 1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12

개 동 아파트 건설 공사를 내년 7월까지 완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지난 8월 16일 현재 신수도 건설 공정률은 30%라고 밝혔다. 최근 신수도 상수도 공급을 위한 스빠구스모이 댐 건설을 완공했고 상수처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2014년부터 대통령을 맡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재선 임기 중이어서 내년 2월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조코위 2기 정부의 최고 국정 과제가 신수도 건설인 만큼 조코위 대통령은 국가예산은 물론 모든 행정력에 동원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내년도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6% 늘어난 3,123조7천억 루피아를 편성했다.

“향후 인도네시아에 외국인 투자 증가할 것” 인베스터 데일리 좌담회

〈글로벌 경기 둔화 속 인니 투자 늘리는 방안〉이란 주제의 좌담회 열려...
바흐릴 투자장관과 이강현 코참회장 패널 참석

글로벌 경기의 둔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디어그룹 B-Universe의 인베스터 데일리 주최로 지난 8월 23일 자카르타 스나얀, 루마까짜 멀라띠에서 열린 좌담회(Investor Daily Round Table)에서 패널로 참석한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과 이강현 코참(KOCHAM,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인도네시아에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보았다.

이날 좌담회 진행을 맡은 앵가르띠아스또 루끼따 B-Universe 미디어그룹 회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와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전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가 향후 인도네시아에 주요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흐릴 장관은 “중국 경기가 둔화됐지만, 최소한 본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운을 뗐다.

바흐릴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많은 중국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배터리 기업 CATL이 6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EV)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부 칼리만탄 산업단지에 참여하고 있다.

또 중국의 대규모 판유리 생산업체인 신의글라스 홀딩스(Xinyi Glass Holdings)가 최근 바ქ주 렘 빙에 115억 달러 규모의 유리 및 태양광 패널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장관은 “특히, 바ქ에 설립되는 신의글라스 공장은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유리 및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으로 투자에 관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거의 완료됐다”고 말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해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미국과 유럽국가의 투자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또 중동국가 투자자 유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와 관련해 이강현 회장은 “인도네시아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자재 수출을 중단하고, 원자재 수출 대신에 다운스트림산업(하류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펴나가면서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낙관했다.

이강현 회장은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투자는 7위를 기록했다며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롯데케미칼 투자에 이어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전기차 충전소가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전기차가 급증할 한 것인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와 오피스빌딩, 아파트 등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상반기(1~6월) 인도네시아 투자액이 678.7조 루피아(452억 달러)를 기록, 올해 목표치의 절반에 육박했다. 올해 인도네시아 투자 실현 금액은 1,400조 루피아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투자와 내국인투자를 합한 금액은 678.7조 루피아이며, 전년 동기 대비 16.1%가 증가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나의 암바라와 (Ambarawa) 3

이태복 (시인, 사산자바문화연구원장)



역 사의 진실이 뒤늦게나마 알려짐에 감사의 한숨을 쉰다. 암바라와의 역사는 한인들의 아픈 인도네시아의 진출사였다. 그동안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로 말했고 르포 형식의 소설로 암바라와를 말했다. 소설 출간 이후, 암바라와는 “한국문인협회”, “대경작가회의” 등 많은 문인단체 탐방처가 되었다. 태평양전쟁 당시, 우리 민족 역사의 아픔을 담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문우들이 이를 주제로 재외동포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암바라와를 다른 작품이 새롭게 평가받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암바라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소재가 됐다.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대경작가회의 회원작가 13명이 암바라와 위안부 수용소와 <고려독립청년당> 창단의 현장인 수모워노와 민영학, 손양섭, 노병한 열사의 의거 현장인 일본군 제2분견소 암바라와 성요셉 성당과 민영학 열사가 의거를 일으키고 총탄을 맞고 쫓기다가 자결한 옥수수밭을 찾았다. 그리고 손양섭, 노병한 열사가 거사를 일으키고 숨어 있다가 서로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어 어깨동무를 하고 자결한 위생창고 자리 또 한 탐방했다.

필자는 지난 7년 동안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체를 팔아 인도네시아에 희생된 조선 포로 감시원과 위안부의 흔적을 찾는데 투자를 했었다. 인도네시아에 포로 감시원으로 끌려 온 조선인들이 항일운동 조직을 만들고 암바라와 의거를 일으켜 독립정신을 고양하였다. 이들의 애국정신은 여러 애국열사와 함께 역사책에 기록될 열사들이지만 간과된 세월에 마음이 아팠다.

인도네시아 한인 진출역사는 태평양전쟁에 끌려와 희생으로 시작된 역사이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추모비 설립 제막식 날, 이번에 방문한 신두환 안동대학교 교수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 이제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태평양 전쟁 흔적을 찾아 8월 25일, 이곳 암바라와를 다녀갔다. 전 세계에서 암바라와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짐승의 우리같이 지어진 조선인 위안부 수용소는 우리 정부가 꼭 보존하고 기려야 할 역사적 교훈이 있는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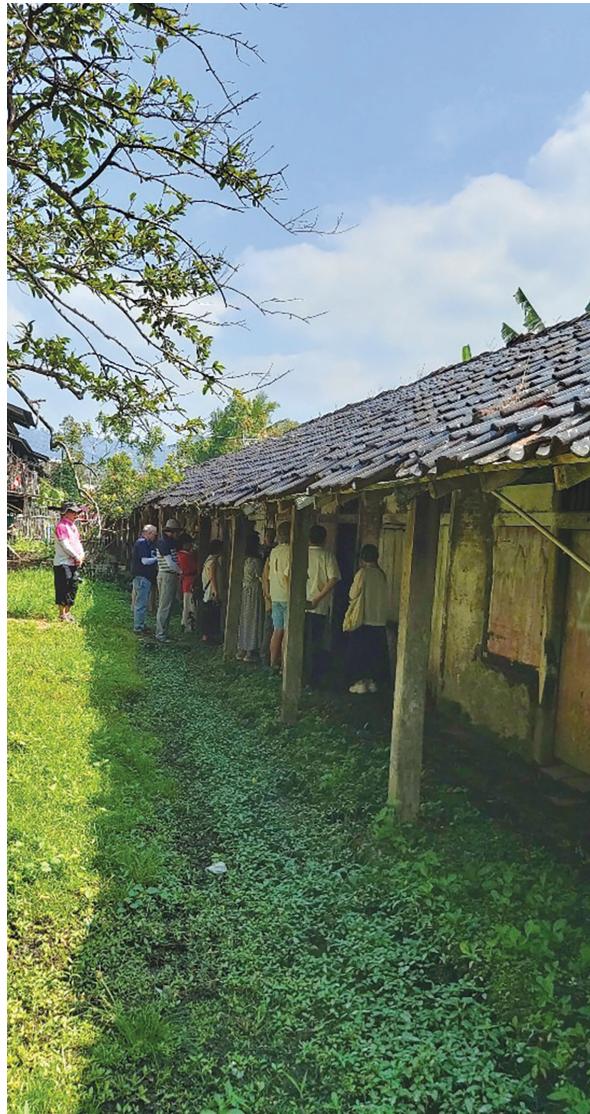
이제, 암바라와는 인도네시아 한인 진출사의 성지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한인들의 독립운동 역사가 뒤늦게나마 알려져 감사한다.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지난 날이다. 소설 속 주인공, ‘서영’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서영은 아무도 없이 텅 빈, 어둡고 칙칙한 방에 들어가기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만큼 싫었다. 서영에게 이제 한 가닥 희망도 없고 살아 갈 이유도 없었다. 이 세상에 미련도 없다. 서영은 무명치마에서 끈을 찢어 둑었다. 방 안 탁자 앞에 놓인 앉은뱅이 의자를 가져다 벤자민 나무 아래에 놓고 올라섰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면 분노했던 마음 뒤편에 고마웠던 기억이 별처럼 반짝인다.

‘어머님, 아버님 이 어리석은 불효 자식을 용서 하십시오.’

서영이 눈을 감았다. 어젯밤까지 잠자던 방안에 갇혔다. 지금은 바람 한 점 없고 사방이 높은 담이다. 희망의 창마저 손이 닿지 않는 곳, 철책으로 막혀 있다. 퇴적된 먼지들로 기침만 해도 폐병이 걸릴 것 같은 칼을 쓴 감옥에서의 세월이 길어지고 있다. 이제 눈물마저 말랐다. 차라리 하늘의 구름이 되리라! 서영이 벤자민 가지에 끈을 둑어 목을 걸고 의자를 밭로 밀었다. 휘영청 밝은 밤하늘엔 검붉은 구름이 서서히 몰려와 서영의 눈앞에서 피구름으로 피어올랐다.



— 6월 가 맛집! —

Lac Mei Che

황지영 (PT. Prime Freight Indonesia)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이 돌아왔네요. 한국은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겠네요. 한국은 올여름 무척 더웠다고 하는데요. 최근 NASA에서 올해가 당신이 겪은 여름 중 가장 시원할 것이며, 내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재앙이 닥칠 것 같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는 Global Warming이 아닌 Global Boiling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상은 했지만 아름다운 가을과 봄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우울하고 걱정되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 배달음식도 줄이고, 요리하고, 외식하는 빈도수도 늘리는 편입니다. 개인의 편리보다는 지구를 위해 좀 더 부지런해질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외식 장소는, 본토 중국인 사장님이 하시는 중식당 가져와봤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식당은 Lac Mei Che입니다. “동베이차이” 라 불리는 중국 동북 요리 전문점인데요. 동북요리는 중국요리 중에서도 한국인들에게 가장 잘 맞는 요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요리가 익숙지 않다면 동북요리 부터” 라는 말도 있을 정도죠. 지리적으로도 한국과 가깝고 기후도 비슷하기에 사용하는 재료도 비슷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향신료 맛이 크게 없고 간이 비슷합니다. 저 또한 중국 유학 시절 입에 맞지 않는 중국 음식 때문에 힘들었지만, 유일하게 잘 먹었던 음식들이 동북 요리였어요. 대표적으로 꿔바로우, 토마토 달걀 볶음 같은 음식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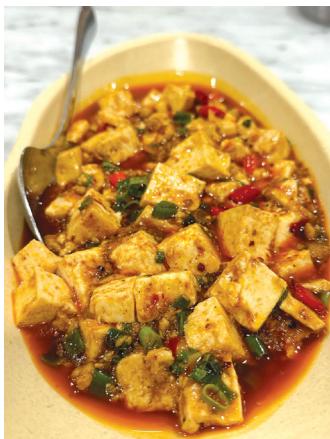
식당 외관부터 중국 흥동이 달려있고, 위치 또한 차이나타운인 ‘Mangga Besar’에 위치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면 중국식 회전 원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중국 본토분이시라 맛도 중국 본토 맛 그대로입니다. 그럼 오늘은 꽤 많은 요리를 소개할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요리 소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소개드릴 요리는 Tomat Cah Telur (68,000 루피아++)입니다. 토마토 계란 볶음인데요. 이 요리는 저의 중국 유학시절 소울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일주일에 5번은 먹었을 거예요. 사실 집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동북요리집처럼 전분이 넉넉히 들어간 촉촉하고 부드러운 계란이 집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구요. 우리가 아는 그 맛이지만, 간도 세지 않아서 아이와 동반하면 아이에게 먹이기에도 좋은 음식일 것 같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어야 영양가가 더 풍부해지는거 아시죠?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Ma Po Dou Fu (78,000 루피아++)입니다. 다들 마파두부 아시죠? 여담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마파두부에 “마”는 수두로 얼굴에 엉은 자국이 있는 것을 뜻하고, “파”는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즉, 곰보자국이 있는 할머니가

만들어 낸 요리가 중국 사천 지방에서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마파두부는 사천요리이긴 하지만, 기름기 가득한 느끼한 요리에 이런 매콤 얼얼한 마파두부 같





은 요리 하나면 질리지 않고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사천식이기 때문에 혀를 얼얼하게 하는 매운맛입니다. 매운 것 먹고 스트레스 날리기에도 좋고 혀와 배가 아프게 매운 정도는 아니라서, 저 같은 맵찔이도 즐기기에 좋은 요리였어요. 부드럽고 맵고 알싸한 마파부두를 밥에 비벼 먹어보세요. 이만한 밥 도둑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Babi Crispy Asam Manis (118,000 루피아++)입니다. 꿔바로우인데요 꿔바로우는 한국에서도 이미 대중화되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모양새가 탕수육과 비슷하지만, 탕수육보다는 고기를 더 얇고 납작하게 평고, 감자 전분을 묻혀 튀겨 더 쫀득쫀득 합니다. 소스는 한국 탕수육 소스에 비해서 식초 신 냄새가 코를 찌를 만큼 아주 시큼하답니다. 이 음식도 안 시키시면 후회 할 거예요. 튀긴 고기, 거부할 수 없는 맛있는 맛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네 번째로는 Terong Paprika Kentang (78,000 루피아++)입니다. 한자로 “지삼선”이라 불리는 요리인데요. 풀이해 보자면, 땅에서 나는 세 가지 신선한 재료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가지, 감자, 페망 이 세 가지 재료를 튀겨서 간장에 볶아낸 요리인데요. 솔직히 이 “가지”라는 채소가 한국인들에게 호불호가 아주 심하게 갈리는 채소이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가지는 조리법에 따라 맛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물컹하고 웬지 모를 비릿함의 가지나물 때문에 가지를 편식했는데, 지삼선을 먹은 후로 가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요리 또한 영양분도 풍부하고 밥 도둑입니다. 꼭 한번 드셔 보세요.

다섯 번째로는 Sapo Kaki Babi Spesial (168,000 루피아++)입니다. 이것은 족발인데요.

한국처럼 예쁘게 편육으로 썰려서 나오는 족발이 아닌 각종 향신료가 들어간 오향 통족발입니다. 한국의 족발은 쫄깃쫄깃하다면, 이 중국식 족발은 살코기는 찾기 힘들고 콜라겐으로 꽉꽉 차서 입안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아버리는 식감입니다. 평소 살코기보다는 쫄깃한 콜라겐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추천드립니다. 혈관이 확 막혀 벼릴 거 같은 맛이지만, 피부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향을 사용해서 돼지 냄새도 적고 그렇다고 향신료 냄새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도전해 보실만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Jagung Telur Asin (68,000 루피아++) 입니다. 중국에서는 “찐샤위미” 라 불리는데요. 황금 모래 옥수수라는 뜻입니다. 옥수수를 소금에 절인 계란 노른자로 토펑하여 낱알로 튀겼기 때문에 그 비주얼은 진짜 황금 모래 같기도 한데요. 짭쪼름한 salted egg와 달콤한 옥수수가 만나 이것이야말로 흔히 말하는 “단짠단짠”의 대가입니다. 밥과 함께 즐기셔도 밥도둑이고, 식사 후 담소 나누실 때 술안주로도 베스트입니다. 뭔가 불량스러운 맛이지만 자꾸만 손이 가서 절대 멈추지 못하실 거예요.

곧 추석이네요, 한국처럼 친척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자카르타에도 가족같이 우리 교민끼리 호형호제하며 지내시는 좋은 친구나 동료들이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과 다 같이 이곳에서 추석 느낌 내보는 건 어떨까요?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맛있는 요리 여러 가지 시켜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좋은 시간 보내기에 괜찮은 곳인 거 같습니다. 다들 정겹고 풍성한 9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더 맛있는 곳 가지고 10월에 돌아오겠습니다. 메리 추석~!^^

식당 정보 : <Lac Mei Che >

음식 종류 : 중식

가격대 : Rp 200,000-25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오전 11:00- 오후 23:00

주소 : Jl. Mangga Besar 1 No. 63K, RT.4/RW.4,
Mangga Besar, Kec. Taman Sari,
Jakarta Barat, Jakarta 11180

※ Google 참고

5 SEPTEMBER 2023
19:00 WIB

한국-인도네시아 천년의 소리 천년의 몸짓 교류 공연

KOREA-INDONESIA PERFORMING ARTS

of Drama Dance & Music of Thousand Years

AT CIPUTRA
ARTPRENEUR THEATER

INFORMASI : ID.KOREAN-CULTURE.ORG



찾아가는 문화원 <SMPK 5 Penabur> 개최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8월 18일(금)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의 일환으로 자카르타 소재의 ‘SMPK 5 Penabur’ 중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 광복절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 일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으며, 500여명의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행사에서는 한국문화원 소개, 한국문화 관련 퀴즈, 댄스부 학생들의 북부 수마트라 전통 춤 공연, 인도네시아 내 한류 열풍 및 한류의 시대별 발전에 대한 설명, 한복 체험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자카르타에서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글: 손예리(일본어 번역가)

얼마 전 기내에서 양자경 주연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봤다. 지금 이곳의 삶에 머물고 있는 나와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내가 동시에 존재하는 여러 세상을 경험하게 된 주인공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광활한 우주 안에서 보면 마치 티끌처럼 작디 작고, 인생은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 과거 내가 했던 여러 선택들이 점처럼 이어져 결국은 선이 되고 그것이 현재의 나를 있게 만드는 것이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었던 내가 선택한 현재 이곳의 삶도 그러나 결국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고 그렇게 인생은 부질없고 허무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이 영화는 말한다.

여행도 인생도 모든 것은 끝나버리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자기 앞에 놓인 상황과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에 담기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 50년간 15만 명의 사람들을 봐온 여든아홉 살의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도 인생은 그 사람의 기질과 환경 사이에서 매 순간 이루어진 선택의 합이라고 말한다.

“인생은 펠연보다 우연에 의해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원래부터 많지 않았고, 흐르는 시간을 당해 내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없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라는 존재의 미약함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

–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 –

자카르타에 머무는 동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이곳에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지금 이 순간의 내 인생의 작은 즐거움을 맘껏 느끼고 감사히 여겼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에서 나온 ‘소확행’처럼 딸 아이의 사랑스런 미소, 고마운 말들, 시원한 라떼 한잔, 일서 문고판 책들, 이러한 작지만 확실한 나만의 행복들은 결국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했더니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한다. 아무리 후회한들 바꿀 수 없는 과거이고 아무리 걱정한들 피해갈 수 없는 미래다. 이런 후회와 불안이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들을 잡아 먹는다고 이근후 박사는 말한다.

“운명이란 게, 탓하자면 끝이 없어서 화풀이 대상으로 이만한 게 없다. 가끔 지치고 힘들 때 운명을 대상으로 화 한번 크게 내고, 털어내고, 다시 출발하면 좋겠다. 그렇게 다시 운명과 친구가 되면 좋겠다. 어차피 태어난 인생이다.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삶인데 이도 저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끝까지 가 보지 않은 연애가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듯,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삶이야말로 죽을 때 가장 큰 후회를 부른다.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달콤한 잠이 기다리듯, 최선을 다한 인생 끝에 편안한 죽음이 찾아온다.”

– <어차피 살 거라면, 백 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중에서 –

자카르타에서 보낸 지난 5년의 시간들이 꿈처럼 지나간 것 같다. 만 2세가 되기 전에 이곳에 왔던 아이는 어느덧 7살이 되었다. 그만큼의 시간을 이곳에서 후회 없이 여행하듯 머물 듯 잘 지내온 것 같다. 고마웠던 주변 사람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말들 덕분에 위안이 되었고 다른 이에게도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작년 10월부터 이곳 한인뉴스의 지면에 총 12편의 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다.

지나고 나면 사라질 이곳 인도네시아에서의 나날들을 저마다 소중한 것들로 차곡차곡 잘 담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럼 소중히 할 거야.

그 한 줌의 시간을.

“Then I will cherish these few specks of time.”

–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

<아이의 성장을 통해 느껴지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시간들>



2022년 10월호부터 2023년 9월호까지 본지에
수필을 연재해 주신 손예리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장 디포네고로 왕자 유년기의 시대적 배경

디포네고로 왕자는 1785년 11월 11일 새벽녘, 당시 ‘동인도’라 불리던 현재의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 위치한 요그야카르타(Yogyakarta)에서 하맹꾸부워노 왕가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특별시 중 하나인 요그야카르타가 이 이야기의 주무대가 되는데 여기서는 인도네시아인들이 흔히 그려는 것처럼 ‘족자’ (Yogya)라고 줄여 부르기로 합니다.

그렇게 갓 태어난 왕자에게 아버지 라덴 마스 수로요 (Raden Mas Suyoho)가 붙여준 이름은 라덴 마스 무스타하르 (Raden Mas Mustahar)였습니다. 왕가와 귀족들의 이름 앞에는 깐젱 (Kanjeng), 라덴 마스 (Raden Mas), 구스티 (Gusti), 벤도로 (Bendoro) 등 고귀함을 나타내는 칭호가 붙고 공주나 왕후의 이름 앞에는 라덴 아유 (Raden Ayu), 깐젱 마스 (Kanjeng Mas) 등이 붙곤 합니다. 그래서 ‘라덴 마스 무스타하르’란 ‘무스타하르 왕자’라는 의미로 쉽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비전쟁



인도네시아 지도

출처 - <https://netz.id/news/2017/07/15/00416/1024140717/mengenal-baru-indonesia>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족자의 위치

출처 - <https://simplyindonesia.files.wordpress.com/2010/11/jogja-map.jpg>

아버지 라덴 마스 수로요는 무스타하르가 25세가 되던 1810년 ‘하멩꾸부워노 3세’ (Sri Sultan Hamengkubuwono III)라는 공식 호칭과 함께 족자 술탄국의 3대 국왕으로서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라덴 마스 무스타하르도 후세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디포네고로 왕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는 아버지에게 첫 아들이었고 훗날 왕가와 족자 술탄국 신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으며 당연히 왕위계승서열 가장 앞쪽에 있었습니다. 훗날 술탄이 된 아버지 역시 그가 자기 뒤를 이어 족자의 술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무스타하르야. 난 네가 훌륭한 술탄이 될 거라 믿는데 왜 국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소홀히 하고 뜨갈레죠(Tegalrejo)의 할머니 맥에만 가 있는 게냐?”

“아버님…,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낮게 한숨만 내쉴 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마음 속에 사무치는 열등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덴 아유 망꼬로와티(Raden Ayu Mangkorowati)는 빠찌딴(Pacitan) 지역 출신의 후궁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암투가 횡횡하는 왕가에서 정실부인을 어머니로 두지 않은 왕자들이 겪는 남모를 차별대우를 디포네고로 왕자도 겪었을 것임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스타하르는 철들어 가면서 그 부분을 더욱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타람의 정기를 이은 왕가의 사내 놈이 의기소침하다니 꼴불견이구나! “

40살이 넘도록 구스티 라덴 마스 순다라(Gusti Raden Mas Sundara), 즉 순다라 왕자라고 불

리던 할아버지는 무스타하르가 일곱 살 되던 해에 족자 술탄국의 두 번째 술탄 하멩꾸부워노 2세가 되어 왕좌에 앉지만 왕자 시절의 불 같은 직선적 성격은 술탄이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스타하르 왕자야, 넌 아무래도 이 왕국을 세우신 네 증조부님의 정기를 좀 더 둘 뿐 받아야 할 것 같구나. 뜨갈레죠(Tegalrejo)에 그렇게 뺨질 나게 다닐 거면 아예 증조모님께 시조 술탄 어른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오려무나!”

할아버지 하멩꾸부워노 2세는 괄괄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결결 웃었습니다. 왕실에 차고 넘치던 왕자들 사이에 특별히 누굴 편애하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하멩꾸부워노 2세는 딱히 개의치 않았고, 호통치는 듯한 그 목소리엔 첫 손주에 대한 애정이 절절히 묻어 있었음도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무스타하르의 유약한 아버지와 달리 할아버지인 하멩꾸부워노 2세는 손주가 강하게 성장하길 바랬고 그러기 위해 무스타하르를 이민족 입김이 거센 끄라톤 궁전이 아닌, 궁 밖에서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술탄 하멩꾸부워노 2세

출처 - <https://kratonjogja.id/raja-raja/3/sri-sultan-hamengku-buwono-ii>

1755년 족자 술탄국을 세운 하멩꾸부워노 1세는 무스타하르 왕자가 일곱 살이던 1792년 3월 24일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왕후 이자 하멩꾸부워노 2세의 친어머니인 하궁 왕후 (구스티 칸젱 라투 하궁 – Gusti Kanjeng Ratu Hageng)은 그후 얼마간 끄라톤 왕궁에 살다가 친정이 있던 뜨갈레죠로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뜨갈레죠는 족자 끄라톤 궁전에서 북서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뜨갈레죠 지역 (빨간색 부분) – 출처 : 구글맵

하궁 왕후에게 무스타하르 왕자가 후궁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총명하면서도 내성적인 중손주를 더없이 사랑했고 무스타하르에게도 하궁 왕후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른이었습니다.

“무스타하르 왕자는 정말 시조 술탄을 쑤 빼어닮았어.”

“할머니, 그 말씀은 별씨 50번쯤 하셨어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걸 어찌겠니?”

하궁 왕후는 무스타하르를 대할 때마다 얼굴 가

득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자글자글한 주름살에 허리가 굽은 노파가 되었지만 그녀는 마타람 왕국의 후신인 까르타수라 왕국 시절부터 하멩꾸부워노 1세가 족자 술탄국을 건설하면서 거쳐온 역사적 사건들을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하궁 왕후의 눈에는 날로 장성해 가는 무스타하르 왕자에게서 자신의 남편이자 왕자의 증조부인 시조 술탄의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증조부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 서양 이민족들과 싸우던 이야기 말이에요.”

“그 이야기야말로 50번은 넘게 해주었던 것 같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하궁 왕후는 할 수 없다는 미소를 띠우며 잠자리에 누운 무스타하르에게 족자 술탄국의 건국과 그 후의 상황들을 몇 번씩이나 알기 쉬운 말로 옛날 이야기처럼 해 주곤 했습니다. 마타람 왕국의 이야기는 늘 시조 권능왕 세노빠티 (Penembahan Senopati)의 신화로부터 시작했죠.

“남쪽 바다 마물들의 여왕 니로로키둘 (Nyi Roro Kidul) 조차 스노빠티 대왕의 놀라운 영력에 놀라 흡모하게 되었단다. 그래서 니로로키둘은 스노빠티 대왕이 마타람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도왔고 마타람 왕가를 영원히 지켜 주기로 했지. 그 니로로키둘의 가호가 족자 술탄국의 시조 술탄에게도, 무스타하르 왕자 너에게도, 그리고 지금 저 끄라톤 왕궁에도 깃들어 있는 거야.”

마타람 왕국은 권능왕 세노빠티 (Penembahan Senopati)가 1587년에 건국한 이슬람 왕국입니다. 왈리 송오 (Wali Songo)라 불리는 아홉 명의 이슬람 선교사들 중 한 명을 극진히 지원한 스노빠티 대왕이었지만 야사에서는 자바의 모든 귀신과 마물들마저 복종시킨 놀라운 영력의 사나이이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니롤로키둘의 이야기는 그냥 전설일 뿐이잖아요?”

“그래, 하지만 우리 왕국에서 저 이민족들을 몰아내기 위해 그런 전설 속의 가호조차도 꼭 있었으면 좋겠구나.”

젖을 떼면서부터 이슬람 공부에 열중해온 무스타하르에게 마물들의 여왕 니롤로키둘의 고사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렇게 말하는 중조 할머니의 마음만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 중조부께서는 서양 이민족들, 저 네덜란드인들을 정말 증오하셨지. 저들을 몰아낼 수만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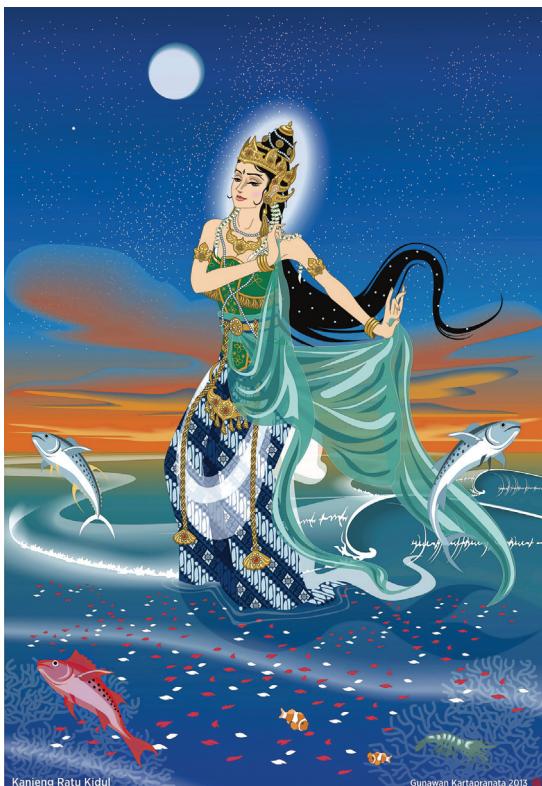
다면 정말 니로로키둘의 힘이라도 빌렸을 거야. 네덜란드인들은 마타람의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 끼어들어 이간질로 불화를 부채질해 왔단다. 그런 짓을 해온 지 벌써 200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저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군대로 전쟁을 거드는 대신 이 왕국의 영토와 이권을 야금야금 빼앗아 갔지. 너의 증조부님은 그런 네덜란드군과 몇 번씩이나 전쟁을 벌여 승리하셨단다.”

하궁 왕후는 창밖 별빛 찬란한 밤하늘로 시선을 돌리며 전장에서 대군을 이끌고 자바땅을 호령하던 중조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 비밀이지만 시조 술탄의 어머니도 후궁이었단다.”

하궁 왕후는 빙긋 웃으며 한쪽 눈을 꿈쩍해 보였습니다.

하멩꾸부위노 1세는 1717년 8월 6일 마타람 왕국 후신인 까르타수라 수난국(Kasunanan Kartasura) 아망꾸랏 4세(Amangkurat IV)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이 무스타하르 왕자가 일곱 살 때였으니 중조 할아버지 시조 술탄의 아우라와 카리즈마를 무스타하르 왕자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용맹스러운 시조 술탄도 아망꾸랏 4세의 후궁 라덴 아유 페자와티(Raden Ayu Tejawati)를 어머니로 두었던 것입니다. 하멩꾸부위노 1세의 본명은 라덴 마스 수자나(Raden Mas Sujana)였고 성인이 된 후엔 망꾸부미 왕자(Pangeran Mangkubumi)라고 불렸습니다. ‘망꾸부미’란 이름이 아니라 그의 위상을 상징하는 칭호였는데 왕의 동생, 또는 태자의 동생이란 뜻으로 자바의 역사상 망꾸부미 왕자란 명칭을 가진 사람들은 왕국의 총리나, 병권을 쥔 군사령관의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니로로키둘 (Nyi Roro Kidul)

출처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3/34/Kanjeng_Ratu_Kidul.jpg

현대의학에서는 뇌의 신경전달물질이나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인해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정신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르한의원에서는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조금씩 바뀔 때입니다. 이상한 병도 희귀한 병도 아닙니다. 주위 지인이 사고가 나면 병문안도 가고 위로의 말도 건넵니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모든 기분, 감정 등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어 언제 어디서든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복하고 해쳐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 **불면증**: 불면증은 하나의 질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정신질환의 초기 증상이며, 즉 정신질환의 시작이 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수면은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못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못 자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져 일에 능률이 떨어지고 실수도 많아집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불면증 상태가 지속되면 치료받아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불면증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1. 입면 장애: 누워서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린다.
2. 유지 장애: 수면 중 깨거나 깨서 바로 잠들기 힘든 경우
3. 조기 각성: 총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일 경우
4. 과수면: 저녁에 9시간 이상 수면(낮에도 심한 졸음이 옴)

네 가지 유형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취침 후 피로가 덜 풀리고 상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시일이 오래되면 “항시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불면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누우면 생각이 많아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는 것의 80%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1) 어떤 생각이나 결심했다면 생각만 마시고 실천해 보세요.
- 2) 당장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세요.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법이니까요.

불면증을 방치하면 다른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기 개선이 중요합니다. 수면제나 항우울제 같은 신경안정제는 장기간 복용 시 복용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복용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 추천 음약: 괜찮아 잘 될 거야(미도와 파라솔)

* 불안장애

불안감과 공포감은 생존에 꼭 필요한 감정이지만 무엇이든 과하거나 모자라면 문제 되듯,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은 불안장애를 불러옵니다. 불안장애를 관리하지 못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불안과 공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대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들게 되면, 불쾌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심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수면을 방해하며 집중력, 소화력이 떨어지고, 근육통(특히 목, 어깨, 날갯죽지 부위)이나 설사, 구토감 등 기타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의 원인

1. 앞으로의 일에 대해 걱정하고, 해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만약, 미래를 보는 능력자가 우리 주위에 있고, 그 사람의 말대로 미래가 펼쳐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큰 병에 걸릴까 봐 두렵고, 우리 가족들이 사고 날까 걱정이고,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무섭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까 불안하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다 등. 내가 불안해하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 미래를 보는 능력자에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당신이 우려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면, 금세 마음은 편안해지고 불안 증세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는 능력자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에 과몰입하다가 불안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확신이나 강박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기보다, 생각지 않은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저희에게 필요한 전 역으로 “긍정적 생각”입니다.

혹자는 유비무환이라고 했으니, 미리 앞일을 걱정하고 대비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혜와 과도한 근심 걱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비하는 것은 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유비무환이 아니라 불필요한 근심, 걱정입니다.

불안장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저를 포함한 많은 분이 원하던 일이 성사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원치 않은 일이 생기면 우울하고, 분노하고 성토하실 겁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먼저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 원하든 원하지 않은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습니다.

– 중요한 것은 원하든 원치 않은 어떤 일은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작은 일도 큰일이 될 수 있고, 큰 일도 작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잘 해결해 나가면 돼. 혼자 힘들 때는 도움을 받아 해결하면 되는 거야” 미래의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불안이나 공포라는 감정 자체가 싫다는 분을 위한 조언 한 마디.

– 인생은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감정이기에 불안과 공포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 불필요한 것은 없고 용도나 쓰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놔두고 싫어하는 것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세상을 바꾼다면 자연의 균형은 깨지고 그 없어진 것의 부작용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없을 수 없고 겨울에 찬바람이 부는 것이 당연하듯, 인생을 살아가기에 불안감, 공포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일의 능률을 올리고, 삶에 활력소가 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내는 것처럼, 적당한 불안과 공포감 또한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생활은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 추천 음악: 나는 문제없어(황규영)

* 조현병

10년 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던 이 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비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 자신 또한 문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패배감, 열등감, 상실감, 압박감, 좌절감 등, 어떠한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며,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털어내지 못하고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여 가면(반복되고 지속됨)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조현병도 이러한 이유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서양의학에서는 신경전달물질 중의 하나인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로 뇌에 이상을 일으켜 환청, 환각, 망상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감정조절이 어려워 쉽게 충동적인 행동을 하다 공격적 성향을 띠는 케이스와 공격적 성향은 약하지만, 상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소통이 힘들어집니다. 자신의 주장과 생각만을 상대에게 관찰하려 들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현병을 대하는 태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많은 분이 정신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력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애정결핍이나 집착이 강하여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환청이나 환시 같은 증상 때문에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힘들어 사람들과의 교류에 장애를 겪게 됩

니다.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격려해주고 다독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약물 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50% 이상의 환자들이 약물이나 주사 요법을 통해 점차 안정을 찾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추천 음악: 돌덩이(하현우)

* 번아웃증후군

첫째, “내 모든 것을 불태워서 일했으나 기대하던 보상(=만족감)은 없고, 오히려 갈수록 힘들다.”

둘째,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보상을 받았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

무슨 일이든 흥이 난다고 느끼면 피곤한 줄 모르고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억지로 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귀찮아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상이라는 흥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반면에 만족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기 쉽습니다.

번아웃을 겪는 대다수가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소홀했습니다. 나에게 투자할 시간을 다른 일에 투자함으로써,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시간이 없기보다는 쫓기는 듯한 나의 심리상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과급을 받거나 연봉이 오르면 그동안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을 받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나 직장동료, 상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또한 동기부여를 받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자신의 기준에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라면 번아웃증후군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자신이 만족할만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면 번아웃 증후군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대하는 태도

다니던 직장이나 일을 그만두고 싶거나, 무기력감, 부담감, 상실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할 일은 많고 끝은 안 보이고, 쉬어도 쉬어도 몸은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온종일 답답한 마음에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앓아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변화해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1) 자신을 위한, 자신의 시간을 늘려 보세요.

- 산책, 운동, 독서, 음악 듣기 모두 좋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해도 충분합니다.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해 보세요

2) 친한 지인이나 전문가와 생각을 나눠 보세요.

- 인간은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힘들 때는 서로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아보세요.

▶ 추천 음악: 나를 외치다(마야)

方

*공황장애

갑자기 발현되기보다는 장기간 불안, 우울, 두려움, 공포, 걱정 등의 부정적 감정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명 “착한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 또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뇌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보장치(심박동, 호흡량, 긴장감이 동시에 증가)를 발동시키는데, 별 이유 없이 혹은 별것 아닌 것에 경보장치가 발동되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체는 자율신경계가 업과 다운을 반복하면서 생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어떤 상황에서 과도하게 기분이 UP 되어 심장박동이 요동치고 호흡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ADHD, 신경쇠약 등 많은 정신질환들이 공황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도의 불안감, 가슴 답답함, 터질 듯한 심장박동, 숨막힘 등의 증상은 죽을 듯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다행히도 아무리 증세가 심해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개 1시간 전후로 증세가 누그러들며 괜찮아집니다.

공황장애를 대하는 태도

다음의 두 가지를 기억해 스스로 위로해 주세요.

- 1) 괜찮아. 이런 형상으로 죽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곧 괜찮아질 거야.
- 2) 천천히, 깊이 호흡하자. 금방 지나갈 거야. 자신을 믿어봐.

공황장애 역시 약물치료나 한약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 추천 음악: Speechless(Naomi Scott)

* 사회공포증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공포를 느끼는 것을 ‘고소공포증’이라고 부르듯 타인을 마주하면 공포를 느끼는 것을 사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거나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에 따라 대인기피증, 무대공포증, 발표공포증, 시선공포증 등으로 불립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 힘들거나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긴장을 잘하고, 얼굴 붉어짐, 손이나 목소리 떨림,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 두근거림, 집중력 저하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회공포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불안에 자신을 노출하면서(무서워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불안이 생각보다 견딜 만하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별일이 다 벌어져도 내가 견딜 수 있구나!’라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나가며 자신감을 쌓으며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처럼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편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더 빨리 치유됩니다.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주의, 집중력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발달이 늦어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거나, 충동적 성향이 있습니다. 7세 전후의 아이들이 수업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기본적인 학습 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머리 쓰는 일을 자꾸 회피하게 됩니다. 또한, 건망증이 심해 물건을 분실하고 깜빡깜빡 잊거나,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기 등의 무례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친구들과의 교류 장애, 자존감 하락, 우울, 불안으로 이어져 정서적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모두 ADHD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하고 기간이 오래되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산만하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다행인 것은 50% 정도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차 좋아지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를 통해 70-80%에서 호전반응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ADHD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아이들마다 개성과 스타일이 틀린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별을 주겠다고 주의를 주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규칙과 약속 준수) 칭찬과 격려,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능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두뇌 발달이나 신체 발달이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잘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개발해주는 노력과 지지가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면 사회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갈 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글

불면증과 불안장애는 모든 정신질환의 시작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정서가 지속되는 경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심신이 약해진 상태라 고통을 이겨내려 하기보다 술이나 약물 등에 의존하여 도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극복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의 대부분은 두려움과 불안함, 불신, 분노, 좌절 등의 감정으로 상대를 믿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가족과 지인, 의료진이 함께 노력하고 합심하면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회복하는 시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정신질환의 치료는 병원의 상담 치료 약물치료가 일반적입니다. 저희 미르한의원에서는 고통과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27세 늦은 나이에 군 생활을 하면서 선임의 괴롭힘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잘 극복했지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 칼럼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혈관질환 중풍과 심장병>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르한의원 주소: Wijaya Grand Centre

Blok C No. 37 Jakarta Selatan
(위자야센터 안 OK덴탈 옆 위치) 0856 9453 7974

승리의 도시, 자야카르타

최하진 (제5회 적도문학상 수상자)



탁 트인 공간을 둘러싸고 새까만 대포가 눈을 거스른다. 선글라스를 끼고 발걸음이 가벼운 낯선 사람들이 지나쳐간다. 따가운 햇볕은 나의 인내심과 출다리기를 하고, 체면 따위는 접어두고 더위를 피할 곳을 찾는다.

털그덕 털그덕 더위에 지친 말이 꼬리를 힘없이 흔든다. 터벅터벅 걷는 것인지 뛰는 것인지 모를 발걸음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흔든다. 갈기의 윤기를 잃은 갈색 말, 목 주위에 달린 종만 정적을 깨는 소리를 낸다.

화려한 조화를 단 모자를 건네는 상인을 뒤로하고 그늘을 찾아 길을 재촉한다. 광장을 바라보는 코너의 건물이 눈에 띈다. 이마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기며 목직한 자띠 문을 열었다.

“Selamat datang. Silakan.”

직원이 반갑게 인사한다. 계단을 에둘러 건물 안을 휘 돌아본다. 익숙하지 않은 건물 내부는 심장 박동을 지핀다. 레드카펫이 나선형으로 깔린 계단을 오른다. 벽에는 훈장 같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17세기 즈음에 바타비아 속으로 들어간다. 거스른 시간을 타고 천정에 오랜 시간을 암시하는 자줏빛의 용 천장 아래 팬이 힘차게 달음박질을 하고 있다. 창가에 들어선 탁자를 골라 자리를 잡았다. 창문 밖, 광장 속의 아리랑이는 이제 저만치 떨어져 올라간다. 건너편 탁자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노부부와 가볍게 눈웃음을 주고받는다.

“Snel werken, anders is er vandaag geen eten.”

약자처럼 보였던 그들은 늑대의 가면을 쓴 악마였다. 탐욕을 감추고 애원하던 그 목소리는 양칼점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단순한 창고만 짓겠다며 손을 비비며 들어온 그들은 왕의 뜰에 대포를 쏘아댔다. 흙빛의 그 대포가 광활한 광장에서 있는 이유다. 평화롭다고 여겼던 이 레스토랑의 건너편은 눈물과 핏물의 엉겨 붙은 흔적이 곳곳에 색을 더해갔다. 아무렇지 않게 마차를 탄 그들의 발자국 아래 쇠스랑에 채워진 눈 밑이 어두운 아이들이 묶여 있었다. 누가 정했는지 모를 세금을 내지 못했다고 한쪽 손목이 날아간 뒤다. 뭉개진 손목으로 아이는 돌을 나르고 있었다. 철장 밖의 다부진 체격에 하얀 피부를 가진 그들은 신들의 색을 지닌 괴물이었다. 뱉어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만한 행동은 제어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로 시작된 약탈은 300년이 넘게 이어졌다. 같은 슬픔을 지닌 나는 심하게 감정이입이 되었다. 떨리는 몸을 쓰다듬으며 다시 눈을 감는다. 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강한 것이 아름다운 거다. 뺏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아직도 이 땅엔 눈에 드는 많은 것들이 있다.

마음이 급한 그들은 채찍을 시도 때도 없이 휘둘렀다. 그들의 언어를 모르는 자들에게 지장을 찍게 하고, 동의하지 않은 문구를 들이밀며 착취를 약속 이행이라며 사기꾼으로 치부했다. 누가 범법자인가? 해석이 모호해진 시대의 흐름은 판단력이 흐려졌다. 지식은 억압하는 데 쓰였으며, 아름다움을 그리던 재능은 도둑질한 물건을 지키고 나르는 데 빛을 발했다. 자유로움과 다양함을 이야기하는 지금의 그들의 뿌리에는 추악한 과거가 깔려 있었다. 반성하는가? 반주하며 그때의 번영을 이야기하는가? 부흥을 꿈꾸는가? 다시는 없을 거라 다짐하는가?

숨통이 트인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듣는 도중의 낯부끄러움은 잘못을 한 자들의 당연한 몫이다. 차지한 그때 문명을 전해주었다는 겸은 속내를 치장한 그런 미화 말고, 안위하며 지내던 그들을 방해한 그 죄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그 실마리가 마음의 웅어리가 녹아내리는 거다. 들을 때 얼굴이 달아오를 것이다. 또는 다른 해석을 하고 싶어 입술이 움직임직 할 것이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과거를 참회하는 자들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 한적함을 짓밟았으니. 그들의 역사에 상처를 내었으니. 그 정도는 인내해야 한다.

‘바타비아’ 원래 이름은 ‘자야카르타’, 자바어의 산스크리트어로 ‘이루어진 승리’라는 뜻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루어진 승리의 도시’가 약탈당하여 바타비아로 불렸다. 승리의 도시를 정복하고 붙인 타국의 이름이다. 다른 나라의 도시에 자국의 마을 이름을 붙여 욕심을 내었다. 약함이 강함에 지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욕심이 난다고 거짓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값을 치르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말이다. 이 시대에 또 다른 제국주의가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낯선 땅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의무가 내게도 사무치기 때문이다.

국제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영어 과외를 한 시간이라도 더 붙여서 가르쳐야 한다는 커피숍의 이야기들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길을 잃은 배의 깃발 같다. 이 땅을 도구로 이해하며, 생활하는 이들의 또 다른 침략이 조용히 이뤄지고 있다. 왜인지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이 땅에 왔으니 이들의 억울함을 들어보고 싶다. 이들과 꿈을 나눠보고 싶다. 그게 우리의 하소연과 닮아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둘러싸고 안아 굽디굽은 그 쇠스랑의 자물쇠가 철컥하고 풀어지길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다. 나시고렝의 부드러운 코코넛 향이 차가운 순가락을 감싸듯 말이다.



영어 한 시간의 과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한 조각을 아이들의 머리에 뿌려주는 것이 더 의미 있게 여겨진다. 이렇게 큰 나라에 수많은 섬 사이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아라비안나이트의 하루 넘김처럼 알려주고 싶다. 그것이 내가 이 나라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슬람 교인이 80페센트가 넘지만, 국교가 이슬람이 아닌 한쪽 문을 열어둔 인도네시아는 열강의 짓밟힘 속에서 짬뿌르(섞임)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어울려서 더 맛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을 보여주듯이…….

“Ibu mau apa lagi?”

갓 로스팅된 커피를 주문한다. 로부스타 커피의 진한 보디감을 감은 커피의 향이 더 위를 뚫고 부르르 떨림을 준다. 마스크를 낀 하얀 눈동자의 큰 눈이 나의 지시를 기다리듯 옆에 선다. 그럴 필요 없다는 듯이

“Kopi ini sangat bagus! makasih!”

하며 웃음을 지어준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총총히 사라지는 직원을 보며 빙그레 웃음을 지어 보인다. 그 웃음은 웬지 슬프다. 나는 이곳의 역사를 보고 또 듣고 말았기 때문이다. 알게 된다는 것은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거기에 멈추면 또 다른 잘못된 역사가 신이 보시기에 슬픈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다짐해 본다. 미래의 거울을 닦는 것은 과거를 잘 이해하는 데 있기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전해줄 좋은 방법과 이야기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것이 슬픈 미소를 또다시 짓지 않게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곱슬곱슬한 흰머리를 쓸어 올리는 노부부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연신 사진을 찍어댄다. 찰칵찰칵. 그 모습에 몸을 부르르 떨렸다. 저 찰칵 소리가 영광이나 그리움의 흔적이 아니기를, 다짐과 반성의 의미이기를.

바타비아! 아니 자야카르타! 너의 과거의 영광이 잿빛의 영화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희망을 부르는 미래의 지도이기를 바란다. 땀인지 슬픔인지, 안도인지, 기대인지 모를 울림이 퍼져온다.

‘새로운’ 의 새로운 삶

새로운 약 2살 (22년 2월경 생후 6개월 추정으로 발견)

- 냥종:** 도메스틱 속 태비(고등어무늬 길냥이)
- 성격:** 매우 암전. 길냥이 출신이라 식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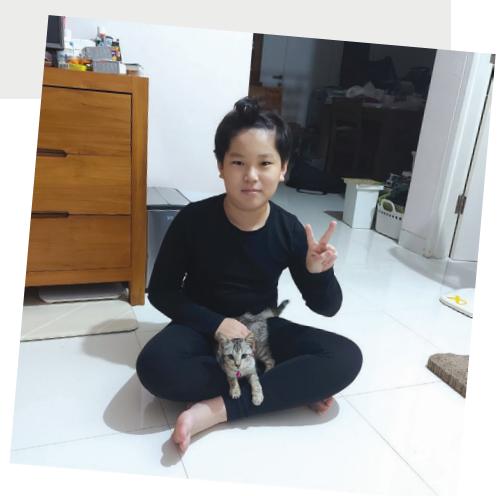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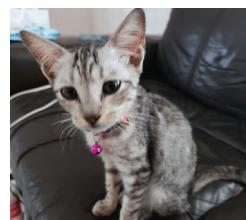
첫 만남은 골반이 보이도록 말라서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였다. 나는 요즘말로 ‘고알못’ 인데 우리 집 두 남자는 뺏 속 깊은 ‘애묘인’이다. 남편의 일터에는 십년 동안 밥을 줘 먹여 살려온 어미고양이도 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신 수의사께서 “장이 약해서 길에서 살아 남지 못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덕에 살려서 중성화한 후 방생한다는 나의 계획은 크게 어긋나게 되었다.

어쩌다 좁게 된 고양이를 힘들게 살렸는데 어이없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성격 덕분에 같이 살게 되었다. 아들이 제일 기뻐했고 이름을 ‘새로운’이라고 지었다.



찌부부르 새씨 시조고양이인 샘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650그램이던 몸무게도 4킬로 가 넘게 커졌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더니 애교도 보여주고 이제는 고양이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키우다 보니 엄청난 미묘이고 발톱 한번 세우지 않은 순동이다. 올 3월에 태어난 강아지 동생 ‘새로아’에게도 냥편치 한번 날린 적이 없다.

계획을 하고 냥집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엔 춥고? 배고픈 길고양이들이 참 많다. 내가 다 구할 순 없지만 새로운에게 새로운 삶을 준 책임을 다 해야겠다. 새로운도 건강히 오래오래 아저씨, 아줌마, 오빠, 새로아와 살자! 고맙다! 우리집으로 와줘서.



김준서 집사(JIKS, 6학년)

UPI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 한국어교육과 신영덕 교수의 편지 나의 이야기

이제 귀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할 겸 해외 대학 과견 객원교수로서의 활동 소감을 적어 보았다. 객원교수 과견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해외 대학 과견 교수로서 인도네시아에 온 것은 2009년 2월 19일이다. 인도네시아에 온 지 14년 반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 강연, 한인신문 기고, 다양한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저서 출판, 논문 작성, 한국학연구소 설립,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자 협회(AJARI)> 창립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는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나는 공군사관학교에서 24년간 생도들을 가르치다가 2008년 6월 공군 대령으로 명예 전역을 하였다. 이후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서 한국어 혹은 한국학을 가르칠 객원교수를 선발하여 해외 대학에 과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 대학교(UI) 객원교수로 선발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나라였기에 약간 걱정도 되었지만 기대도 되었다. 아내와 나는 2009년 2월 19일, 자카르타 공항에 밤늦게 도착했다. 공항에서는 인도네시아 대학교 직원과 대학원생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들은 우리를 학교 방문자 숙소로 안내해 주었다. 학교 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웃어가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만나니 기분이 좋았다.

숙소에서 하룻밤 잔 뒤 우리는 한국학과 교수님들을 만났다. 학과장 교수는 ‘이미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금요일인 오늘은 학생들과 인사만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업을 시작하라’고 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환호하며 반겨주었다. 마치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다. 여학생들이 대부분이라 남학생이 대부분인 공군사

관학교 교실과는 대조적이었다. 특히 분위기가 매우 밝게 느껴졌다.

인도네시아에는 2004년부터 본격적인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학생들이 한국을 좋아하니 가르치는 일도 즐거웠다. 그런데 <한국문학사> 강의는 학생들이 어려워했다. 강의 내용이 쉽지 않은 데다가 인도네시아어로 된 교재가 없으니 더 그렇다고 했다. 어떤 학생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올면서 시험공부를 했다는 말도 했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되자 나는 인도네시아어를 빨리 배워서 인도네시아어로 된 <한국문학사> 교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 학기가 끝나자마자 나는 아내와 함께 학교 어학원(BIPA)에 등록하여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어 공부는 쉽지 않았으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특히 강의 시간에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 좋았다.

인도네시아 대학교에 근무할 당시에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는 물론이고 한국문화원, 한국대사관, 자카르타 한국인학교, 가자마다 대학교, 나시오날 대학교, 세종학당,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등에서 한국 문학,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 한류, 청소년 진로 문제 등에 대해 강연하였다. 그리고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심사를 맡기도 했다.

나는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문학잡지 『호리손(HORISON)』에 문학평론을 게재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로스티뉴 교수가 한국전쟁소설에 대한 나의 글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주어서 잡지사에 보냈더니 게재되었다. 인도네시아 문학잡지에 실린 최초의 한국문학 평론이 아닐까 싶다.

이외에도 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한인신문과 잡지



객원교수로 활동하면서 출판한 책

등에 글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문화를 한국에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이야기』를 기획 편집하여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20여 대표 종족과 그들의 문화를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도네시아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나는 중국의 복단대학 및 전남대 교수들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두 권의 교재 『한국명작의 이해와 감상』, 『한국문학사』를 제작하였다. 이 책들은 3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후 한국 출판사 민속원에서 출판되었다. 외국 대학생들이 한국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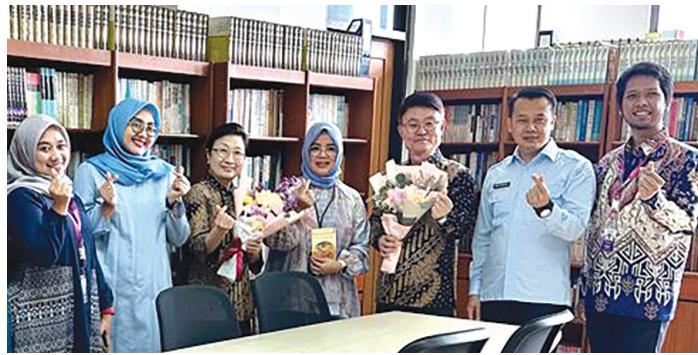
이처럼 활동하다 보니 6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갔다. 인도네시아 대학교를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의 임기는 2015년 1월 말까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후 무엇을 할까 생각했다. 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외국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 생각이 많았다. 그런데 아내는 다른 외국으로 가는 것은 힘들다고 했다. 당시 우리는 84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한국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이때 마침 반동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UPI)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어교육학과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와서 도와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나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는 인도네시아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이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이 대학은 종합대학으로서 우리나라 교

원대학교와 유사하다. 2020년도 평가에서 이 대학은 국립대학 전체 중 2위를 차지했다고도 한다. 나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를 찾아가서 당시 어문대학 학장이었던 디디 수키야디 교수를 만났다. 현재 대학 부총장인 그는 한국어교육학과를 개설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그리하겠다고 하면서 재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라 한국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디디 수키야디 학장과 함께 나는 재인도네시아 한국 대사와 한국국제협력단장을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다행히도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얼마 후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객원교수 1명,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한국어 전공 단원 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왔다.

그런데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나에게 객원교수로 재파견되고 싶으면 선발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나는 2015년 6월에 선발 시험에 응시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객원교수로 선발된 후에는 7월에 반동으로 이사했다. 휴양 도시인 반동은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항상 시원하여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곳이어서 어머니도 좋아하셨다. 당시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에서는 한국인 강사 3명을 현지 채용했다. 이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지니고 있던 아내도 정식 강사로 채용되었다. 이후 우리 부부는 활동을 거의 함께 했다. 커리큘럼을 만들고 수업 계획서도 작성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한국학교육학회(AKSEIN)를 결성하여 교수 간 학술정보 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였다. 여러 차례의 한국어, 한국학 교육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한국학 교육의 발전을 꾀하였다.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한국어교육 학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해외 대학 한국학 씨앗형 사업>에 지원했다. 감사하게도 선정이 되어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에서는 매년 4,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책임자였던 나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내에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는 학생들에게 3년 동안 근로장학금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학 교육 관련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매년 개최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집도 발간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설화와 한국 설화를 비교한 논문을 경희대 박사과정에 다니는 제자와 함께 공동 작성하여 이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2018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교수인 넨텐 릴리스 교수와 함께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2018)를 인도네시아어로 공동 번역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출판하였다. 3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어 교수, 교사, 학원 강사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한국어교육자 협회(AJARI)>를 창립하였다. 이때 회장으로 선출된 나는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년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논문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교수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어로 된 교재 『한국사 이해』(2019), 『한국문학 이

해』(2020)를 공동 집필하여 인도네시아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인도네시아로 된 교재를 발간하고자 했던 숙원의 사업이 11년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이외에도 나는 가자마다 대학교(UGM)의 요청으로 학생들에게 한국문학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이후에는 한 학기 강의 내용을 2주 동안 매일 6시간씩 강의하기도 하였다.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2019년에는 수라바야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윤동주의 생애와 시>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이 때 한 학생의 시 낭송을 듣다가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나서 당황했던 일이 기억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육부 주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가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소설 『라스까르 뿔랑이(무지개 군단)』의 무대인 블리뚱에 갔던 일, 아세안 문학자 대회에 한국 문인 대표로 참석하게 된 일 등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한국문학번역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한국소설을 번역하였다. 왜냐하면 번역가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11명의 3학년 학생들과 함께 한국 현대소설 이태준의 <복덕방>을 번역하였다.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두 번째부터는 좀 더 쉬운 황순원의 <소나기>를 번역하였다. 번역 동아리 활동 소감을 들어보니 모두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으며, 한국 문화를 많이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소나 시간 문제 때문에 온라인으로 번역 활동을 해서 다소 아쉬웠다고도 했다.

이처럼 나는 해외 대학 객원교수로 파견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한국에서 유학한 후 돌아와 교수가 되고, 나와 함께 공동으로 논문

을 발표하거나 저서를 출판한 일 등이다. 2020년 12월에 나와 아내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로부터 제1회 공로상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상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제는 떠나기 전 마무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인사도 미리미리 하고 이삿짐도 조금씩 정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장하고 있던 1,500권의 책과 8개의 책장을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에 기증했는데, 정든 책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쉬웠지만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을 생각하니 뿐 듯하기도 하다.

지난 14여 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여겨진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 그리고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신영덕 교수와의 인터뷰]

인도네시아에서 인연이 되었던 《한인니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이 아쉬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Q. 처음 UPI에 한국어교육학과를 세운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2013년에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는 인도네시아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에서는 한국어교육학과를 개설하여 인도네시아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Q.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어려웠던 일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처음 정착할 때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어를 몰라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난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Q.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상쇄할 만한 보람된 순간도 많으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활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인도네시아 한국어교육 발전을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지요?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교육이 발전하려면 우수한 교수, 우수한 학생, 우수한 교육 환경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어교육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각 대학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인도네시아 한국어교육 발전을 위해 소장하고 계시던 책을 기증하셨다 들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증했던 책은 대부분 문학, 역사, 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면서 모아두었던 자료들도 기증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학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년의 나이가 되어 귀국합니다만 한국에 돌아가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학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는 일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Q. 《한인뉴스》 독자들을 위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적지 않겠지만 지혜롭게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이곳에 오신 목적을 모두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인니문화연구원》, 《한인뉴스》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들의 이야기: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글: 루이사(한국문학번역가)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갈지, 우리가 떠난 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요즘 MZ세대 사이에 유행 중인 'MBTI'의 컨셉을 빌리자면 나는 'S' 라서 그런 일들을 상상해 본 적이 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미래지향적인 N들과 달리, S들은 물질적인 현실세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 방영된 <무브 투 헤븐>이라는 드라마를 본 후에 삶과 죽음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이 드라마의 원작은 김새별님과 전애원님이 쓴 책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다. 두 분은 원래 작가가 아닌 유품정리사다.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은 떠난 이들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 즉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이다. 김새별 유품정리사님은 2007년에 특수청소 업체인 바이오해저드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현장을 정리하였다. 현재까지 정리한 현장은 대부분 고독사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의 마지막 보금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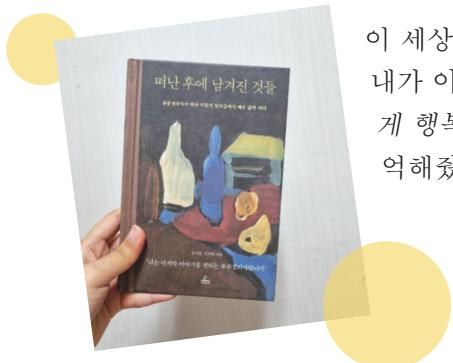
노인이 되어 가족들이 곁을 지켜주며 침대에서 편안하게 천천히 눈 감고 죽는다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고 모두가 바라는 죽음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가 현실에는 많지 않다. 오히려 쓸쓸하게 혼자만이 있는 작은 방에서 죽는 사람들 또는 타인에 의해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 책에 담겨 있다. 책의 주제가 어둡기 때문에 힐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것이다.

떠난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을 보면서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한 장 한 장 책을 읽으면서 슬픈 감정이 차오르고 눈물도 흘리곤 했다. 외국에 있는 딸을 걱정하게 만들기 싫어서 병을 숨기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다. 혼자 살다가 질병으로 죽기 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에게 전화하지 않고 119에 전화하였다. 딸을 절대로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딸 전화번호까지 저장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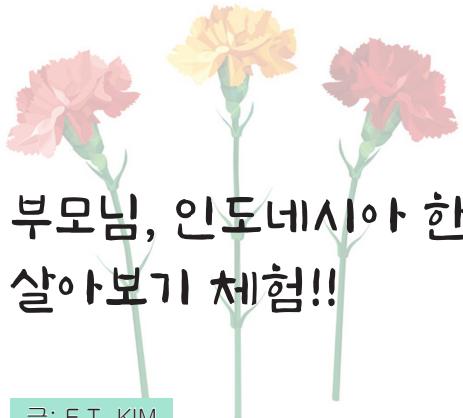
슬픔 뿐만 아니라 분노 유발 에피소드도 있다. 유품정리사가 일하고 있는데도 유족들이 집 안에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찾고 있는 듯이 계속 여기저기 뒤적거렸다. 찾고 있는 것을 찾지 못하자 방에서 나왔는데 유품정리사는 부모님 사진이라도 가져가라고 하면서 액자를 주었더니 자식 중 한 명이 액자는 필요 없다면서 바닥으로 던졌다. 알고 보니 그 액자 뒷면에는 돈 봉투와 땅문서가 나왔다. 그러자 자식들은 우르르 와서 돈과 땅문서만 챙기고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뻔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화나게 했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커녕 부모가 남긴 재산만 찾으려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부모가 돈 봉투와 땅 문서를 액자 뒷면에 숨긴 것은 적어도 자식들이 부모의 사진을 챙겨갈 것이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가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했을까?

이 책은 한 번에 읽기에는 버거워 몇 번 울음을 참고 책을 덮어야 했었다. 마지막 장에 저자는 “유품정리사가 알려주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7계명”을 써주었다.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를 습관화하는 것,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 두는 것,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는 것,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않는 것, 가진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이기에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때 어디로 갈지 궁금하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겨진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지에 대해 더 궁금하는 편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않은 것이 좋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삶을 더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참 열심히 살았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던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부모님, 인도네시아 한 달 살아보기 체험!!

글: E.T. KIM

최근 3년간 한국 1인 해외여행자의 수가 198%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단체 패키지여행이 줄어든 대신에 조용히 혼자 여행을 떠나 자기 내면과의 소통과 힐링을 더욱 즐기는가 보다. 3년 동안 10위 안에 포함된 국가 중 동남아시아 도시가 무려 8개를 차지한다고 한다. 1위는 태국 방콕, 2위는 필리핀 마닐라, 3위는 베트남 호치민, 4위 필리핀 클락, 5위 베트남 하노이....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행 선호 국가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4시간 내갈 수 있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 도시가 대부분이다.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까지 오기는 좀 부담스러운 비행거리다. 물가가 싸고 한류 친화적이고 관광업을 육성하는 동남아 국가가 1인 한국 여행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선호하는 공통점은 물가, 치안, 조용한 휴양,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언어 의사소통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의 한 달 살아보기 선호 1위 국가는 한국인과 달리 인도네시아 발리이다. 신들의 섬이라 평안한 분위기이며, 동서남북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자연친화적 환경이 즐비하다. 비행기 가격을 제외하고 발리에서 한 달 살아보기에 소요되는 평균비용도 큰 부담이 없는 편이다. 즉 적은 비용으로 삼시 세끼 먹고 오토바이 기름값, 한 달 숙소 비용 등을 지불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그리고 액티비티를 접할 수 있으니 유럽과 오세아니아 쪽 관광객이 많이 보인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부자들이 추위와 머리 아픈 전쟁 뉴스를 피해 발리에서 장시간 지내고 있다고 한다. 현지 발리인들은 그들의 교통법규 미준수, 방탕한 생활, 폭행 사고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아무튼 우리 부모님은 큰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자카르타와 발리 등에서 한 달 살아보기를 지난 6월에 우연히 결심하게 된다. 먼저 ‘결혼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타이틀을 내세웠고,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여름휴가를 갔다가 나 혼자 일주일만에 자카르타로 복귀하는 비행기 편에 부모님을 동반해서 입국했다. 1주차는 발리 관광, 2주차는 자카르타 맛집 탐방과 생활 루틴 만들기, 3주차는 반동 및 보고르 관광, 4주차는 한국에서 휴가 마치고 돌아온 가족과 합류 생활이라는 큰 테마를 기획했다.

시간은 항상 그래왔듯이 4주는 훌쩍 흘러갔고, 부모님과 다양한 추억, 진중한 인생 소통, 보이지 않는 내적 갈등까지도 만들어냈으며, 지금은 지피지기를 못한, 배려심이 부족했던 지난날들의 아쉬움이 남아 이렇게 노인인 부모 눈높이를 글로 정리하고 싶어졌다.

첫째, 에너지 총량 보존의 법칙이다.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적 알던 강한 체력의 소유자가 더 이상 아니다. 노인은 반나절 이상의 강행군 여행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 다음 날은 쉬고 싶어 하신다. 빨리 여행도 2일간 짜임새 있는 강행군 일정이었으나, 3일째 비가 많이 와서 우붓을 가지 못하고 호텔에만 머물렀는데 오히려 한적한 그 날을 더 좋아하셨다. 차도 1시간 이상 타는 것을 싫어하고 이왕 이면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하루 고정된 루틴(수영, 건강식 및 약 챙겨먹기, 중독성 유튜브 보기 등)이 깨지는 것을 싫어하셨다.

둘째, 제안 거절 후 협상의 법칙이다. 일단 내가 제안하는 모든 여행일정에 습관적으로 거절부터 하신다. 아들 직장에 부담이 되기 싫어서, 경제적으로 부담 주기 싫어서, 막연한 외지에 두려움이 있어서 거절하는 게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있다. 자식이 효도하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의 피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간 충돌하는 순간들이 수시로 찾아온다. 하지만 못내 아들 제안을 수긍하고 맛집을 가거나 관광지를 가면 부모님은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신다. 밖으로 모셔서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과 집에만 있으려는 노인의 마음이 살바 싸움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협상이 타결되곤 한다.

셋째, 결국은 향수병으로 기울어진다. 1, 2주차 때는 호기심과 행복감으로 인도네시아의 긍정적



인 면을 부각하지만, 길어진 여정과 지루함에 3, 4주차에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셨다. 그나마 4주차에 한국에서 손주들이 돌아와서 즐겁게 생활하다가 28박 29일의 한 달 살아보기를 마치고 향수병 있는 곳으로 돌아가셨다. 4주차에는 각종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쌓아두기, 손자 비염 치료를 위한 노하우 전수하기 등 여러 가지 사랑의 흔적을 여기저기에 남겨두고 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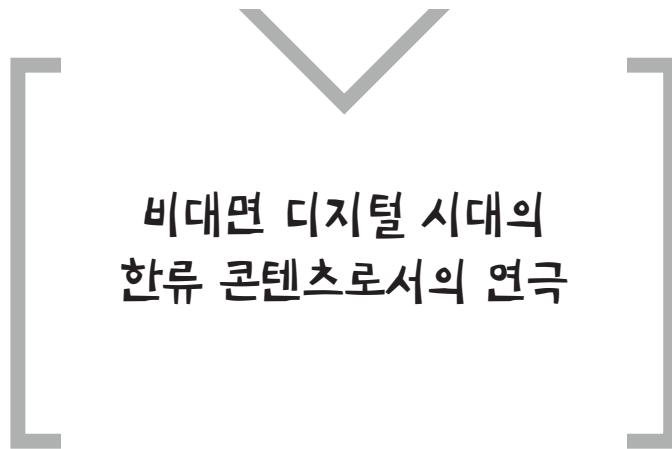
50년간 살면서 부모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앞선다. 부모님은 빨리 남부 멜라스티 비치에서 명 때리고 펼쳐진 수평선의 파도를 한참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셨고 중간에 패러글라이딩하는 두 청년이 멋지게 헬기장 착륙장으로 안착하는 모습까지도 좋아하셨다.



그리고 깨짝 댄스 공연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름의 해석으로 집중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비치에 비키니로 누워있는 백인 여자들을 의식적으로 안 보려고 노력하신 아버지의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다. 특히 어머니는 아들 덕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 살아보기를 도전한다고 한국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셨기에 그들을 위한 선물도 꼼꼼히 챙기셨다. 해외여행 자랑 같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쇼핑은 연령과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해외여행의 필수이기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카르타 공항에서 두 분이 검색대를 통과하고 손을 흔들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빨리 한식집 사장님의 했던 칭찬이 떠올랐다. 그 칭찬을 듣고 이번 부모님 여행의 한 달 살아보기 체험이 언젠가 또 이어지길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보통 딸이 부모님 모시고 빨리 여행을 오는 경우는 여러 번 봤지만, 아들 혼자 부모님 모시고 여행 온 경우는 처음이라 신기하고 한편 기특하시네요.”



비대면 디지털 시대의 한류 콘텐츠로서의 연극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2023년 자카르타 국제연극플랫폼 개막작, 극단 서울공장의 <두 메데아> 공연 후기
비대면 디지털 시대에 연극 ‘두 메데아’가 자카르타 관객에게 다가가는 방법
양극화된 사회와 끊어진 사람들의 마음
갈라진 세상을 끌어안고 소통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극단 서울공장의 <두 메데아>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연극플랫폼 DITP 2023 개막작으로 8월 13일 저녁 때만 이스마일 마르주끼(TIM) 소극장에서 공연해, 인도네시아 관객들의 공감과 박수 갈채를 받았다. 연극 <두 메데아>는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아’를 각색한 작품으로 자식을 살해한 여인 메데아를 어미와 여인의 두 마음으로 표현했다. 2007년 ‘제19회 카이로 국제실험연극제’에서 최우수 연출상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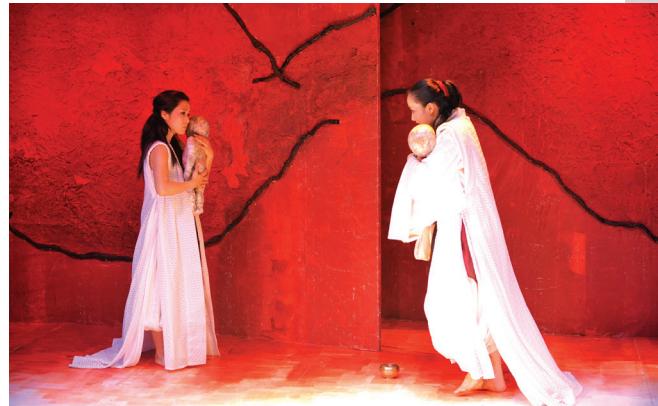
그리스 희곡 <메데아>는 사랑하는 자식들의 어미인 동시에 연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복수에 관한 이야기로, 2020년 방영된 김희애 주연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모티브도 <메데아>에서 따왔다고 한다. 연극 <두 메데아>는 메데아의 내적 갈등을 두 명의 배우를 등장시켜서 드러내며, 한국 전통의 소리와 몸짓을 활용해 공감각적 시선으로 그려낸다.

메데아와 이아손 등 배우들은 ‘여우야 뭐하니’ 등 한국 전통 놀이를 통해 어린 시절의 평화로움을 연기한다. 메데아는 이아손과 사랑에 빠지고 그를 위해 동생을 죽이고 타향으로 도망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이아손은 이주한 나라의 공주와 결혼해서 권력과 부를 얻으려 하고, 메데아와 아이들은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다. 복수를 결심하며 메데아는 한 남자를 사랑했으나 배신당한 여인과 아이들을 지키려는 엄마로 갈라져 격렬하게 갈등한다. 메데아는 이아손의 새 신부인 공주와 그의 아버지 크레온 왕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차례로 죽인다. 여인 메데아와 엄마 메데아는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에서 잘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씷김굿을 하며 화해한다.

<두 메데아>는 연극과 한국 민속극의 하이브리드 작품으로 현대적인 연출과 배우들의 열연으로 공연 내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극 초반 배우들이 깜깜한 무대에 촛불을 하나둘 밝히며 고요히 등장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나무 스치는 소리, 조약돌 부딪히는 소리를 차곡차곡 쌓으며 이야기를 연다. 무대 좌·우측에 늘어앉은 배우들이 입으로 소리를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음악을 만들기도 한다. 전통 북과 클래식기타 등 장르

를 넘나드는 악기와 사람이 부르는 정악과 판소리가 공간을 다양한 감정으로 채운다. 엄마 메데아의 노래에는 아름답지만 애절한 무기력함이, 여인 메데아의 대사에는 분노가 이아손의 대사에는 교활함이 유모의 대사는 경고가 들린다. 결말에 이르면 배우들이 셋김굿 뒤 촛불을 차례로 끄고 물러나면서 소리도 사라진 캄캄한 공간만 덩그러니 남는다. “여자는 겁이 많지만, 사랑에 배신당했을 때는 그 무엇보다 잔인해지는 법이지요.” 복수를 결심하는 메데아와 “엄마”라는 소리에 갈등하는 그녀의 내적 갈등이 한국적 가락과 움직임으로 표현되는데, 마치 현대무용 작품을 보는 느낌도 들었다.

메데아는 사랑 때문에 자식까지 죽인 그리스 신화 최고의 악녀로 흔히 표현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연출가 임형택 서울예대 교수는 메데아의 행동을 광기에 휩싸인 모성의 배반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내려는 강렬하고 눈물겨운 모정으로 표현한다.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은 이미 사라져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고, 사랑은 사라지고 탐욕과 배신의 현재는 죽음보다 더 쳐절한 비극의 현장이어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됐기 때문이다.



연극을 보며 다른 생각도 들었다. 메데아가 동생을 죽인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이아손을 위해서만일까? 메데아는 왜 아버지를 배신했을까? 혹시 후계 구도에 밀려서는 아닐까? 메데아의 아이들을 한 사람이 평생을 노력해서 얻은 무언가로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배신을 당한다. 그렇지만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사과도 제대로 못 받고 현실과 타협하거나 상대를 미워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메데아의 복수는 신화나 허구로 느껴지기도 한다. 심지어 메데아의 복수는 스스로에게도 비극이 된다. 메데아는 이아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공주와 그의 아버지를 죽였지만, 그로 인해 코린토스에서 추방당하고 본인도 자식을 잃는다.

임형택 연출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갖고 있을 딜레마가 이 공연에 담겨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몸을 던져 사랑했던 연인이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변심했을 때 나의 선택은? 연인과의 사랑의 증거로 태어난 아이를 살해해서라도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여인의 마음과 사랑의 증거로 태어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보듬고 살아가야 한다는 어미의 마음은 서로 다



른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아닌 우리 안의 두 마음”이라고 말했다. 임형택 연출가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여인의 비극을 다뤘다” 라며 “작품을 통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관객을 배려한 연극

<두 메데아>는 인도네시아 관객을 배려한다. 한국 전통 놀이와 동요는 전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무대의 무거움을 걷어낸다. 공연 중간중간 간단한 대사는 인도네시아어로 한다. 중요한 대사는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무대 위 스크린에 띄워 관객의 이해를 돋는다. 자카르타 공연 소감에 대해, 임형택 연출가는 “우리 연극의 농담과 진담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한국의 노래와 춤이 담고 있는 화두를 인도네시아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우려했지만, 공연을 마치고 난 후 객석에서 보여준 공감의 뜨거운 박수를 들으며 그 우려를 지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관객에 대해, 그는 “인도네시아의 관객들은 힘찬 박수로 마음 한자리를 같이하였다. 영역을 넘어서는(Crossing Zones) 그 현장에 같이 한 인도네시아 관객은 나에게 외국인이 아니다. 바다를 한 번쯤 슬쩍 건너오면 마주하는 동네에 사는 나의 뜨끈한 이웃이다”라고 묘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비대면의 시대이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으로 영화와 드라마, 웹툰과 애니메이션까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연극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연극은 수많은 한류 콘텐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두 메데아>를 직접 보면서 사라졌다. 사람이 악기를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고 연기하고, 배우와 관객이 직접 대면해 순간순간 바뀌는 표정을 보는 연극은 오히려 비대면 시대에 더 가치 있는 대면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메데아>의 뛰어난 연출과 연기, 잘 알려진 이야기와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통해 관객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 고대와 현대의 경계, 그리스와 한국의 경계,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의 경계를 오간다. 스크린에 구현되는 영화나 드라마 못지않게 인도네시아 관객들이 몰입하는 모습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문화예술계도 창조경제와 문화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연도 인도네시아 연극 축제인 “자카르타 국제연극플랫폼(Djakarta International Theater Platform, DITP)의 일환이었다. DITP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축제이자 예술 플랫폼으로, 국제적인 연극예술가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장이다. 2023년 올해의 주제는 “영역을 넘어서(crossing zones)”로 예술가들 사이의 창조적인 작업과 협력을 기대하며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연극 작품의 상연했다. 동시에 콜라보레이션 스튜디오, 아티스트 토크 등 여러 부대행사도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린 올해 행사는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TIM에서 열렸고,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 온 6개 팀이 공연했다. 밤방 프리하디 자카르타예술위원회 연극위원장은 자카르타를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시아 예술 중심지로 만들고 인도네시아 연극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으로 연극이 한류 컨텐츠의 하나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업을 통해 더 풍성해지길 기대한다. [끝]

신인 작가의 등용문, 제5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개최



한국문인협회(이하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가 주최하고 재인도네시아한인회와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이하 문예총), 한인포스트, PT CIPTA ORION METAL이 후원하는 제5회 적도문학상 시상식이 8월 26일, 한인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김준규 회장은 “어느 해보다 풍성한 신인들이 발굴” 되었으며, 시·소설·수필 분야에서 “역량있는 신인 작가들이 탄생하여 고무적이고, 문인으로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회를 선언했다. 김주명 사무국장은 협회 소개와 더불어 신인 작가의 등용문이 되는 적도문학상의 의미를 알리며 행사를 진행했다. 이어 문예총 김혜정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적도문학상 수상자들이 문필의 힘으로 인도네시아를 살아가는 기쁨의 스타트를 끊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사평에서 시인 김준규 회장은 “기성 시인에 견줄만한 깊이를 가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신인 작가들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수필가 하연수 감사는 수필 심사평에서 “주제와 창의성, 문학성, 구성을 바탕으로 미래 가능성은 지닌 작품”을 발굴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소설가 이태복 작가는 소설 수상 작품들에 대해 “세밀한 묘사력과 표현법, 인물의 구성과 글의 전개 등이 우수했다”고 평했다.

시상자로는 위의 심사위원들과 김우재 시인, 한인뉴스 홍석영 편집장, 이영미 아동문학가, 문예총 박의태 회장이 참여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시상과 함께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이 이어졌다. 소설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조은아 씨는 수상 소감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녹여 쓴 <작고 어린, 곤졸>의 배경인, 30여 년 만에 찾은 시골의 소회를 밝혔다. 시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윤세귀 씨는 <전기와 우기 사이>의 서면 수상 소감을 통해 시(詩)라는 작은 우산을 만들기 시작했음을 알렸다.

김준규 회장은 “자연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문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폐회사를 마쳤다. 수상작은 한인포스트와 자카르타 경제신문에서 볼 수 있으며, 11월에 발간되는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동인지 8집에 수록된다.

(제공: 한국문협 인니지부)

우리의 말과 글, 역사와 문화, 올바른 인성교육을 주도하는 자카르타 한글학교



자카르타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청의 재외교육기관으로 한국인 2세들의 한글 교육 및 한국인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2021년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자카르타 한글학교는 1년 2학기 과정으로 각 학기는 13주 동안 진행됩니다. 수업은 주 1회(토요일) 한글 수업 1시간과 한국사와 미술 문화활동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카르타 한글학교에서는 ‘글쓰기’를 주목적으로 수업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심화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 목적/형태에 따른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카르타 한글학교에서 글쓰기 학습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학생을 세계적이고 시대의 발전을 앞서가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교육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각 단계별 10~12명의 학생이 있으며, 현재 46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카르타 한글학교에서는 캘리그라피 강좌, K-POP 댄스 등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동기부여 강의인 ‘꿈을 찾아서-GRIT’ 강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습의 다양성과 질



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시작 전 책 읽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책에 관한 관심을 심어주며, 독서 습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독서 습관은 학생들에게 한글 습득만이 아닌 다양한 지식을 쌓는 유익한 습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지식을 ‘배우고’, 배운 것을 ‘활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한글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우리의 고유 언어이자 문화가 녹아 있는 ‘한글’을 바르게 배우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매년 ‘독후감 대회’ 및 ‘한국사 바로 알기 글쓰

기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본인이 가진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돋고 있으며, 시상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의 발판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E-BOOK 제작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E-BOOK 제작과정과 결과물은 학생들의 창의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카르타 한글학교에서는 인성 및 자격을 고려하여 최고의 교사진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사, 미술 특별활동이 함께 진행되는 확장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육은 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한국사'라는 과목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 줍니다. 학생들은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전기-조선'까지의 역사와 한국인으로서 알아야 할 독도 이야기 및 역사 이야기를 배우며 우리나라의 역사가 단순한 과거에 있던 일이 아닌, 내 옆에 살아 숨 쉬는 역사임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학생들은 같은 언어, 문화권의 친구와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한국적인 예의와 정서를 배우고 타자에서의 불안감을 완화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미술 수업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주제로 나의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고 여러 미술기법과 재료를 이용해 작품을 창작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창작한 작품들은 수료식 때 전시회를 합니다. 정서 지능이 발달해야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점검하고 구별하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이끄는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정서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기에 이를 중점으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한글학교의 김종성 교장 선생님께서는 한글 교육도 물론이지만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학생들이 자카르타 한글학교에서 상대방을 존중, 배려하고 소통하며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이 아름다운 학생'이 되도록 돋고 이끄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자카르타 슬라탄 빈민 마을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로 손해를 입은 이웃을 돋는 바자회를 열어 학생들이 기부해 준 물건들로 바자회를 하고 그 수익금을 이웃에게 전달하기도 했으며 올해에는 우수학교로 자카르타 한글학교가 대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 3월)

자카르타 한글학교 교사들은 상대방을 존중, 배려하며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이 아름다운 학생'이 되도록 돋고 이끄는 자카르타 한글학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지영 교감(자카르타 한글학교)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학생기자 황다인 (BSJ G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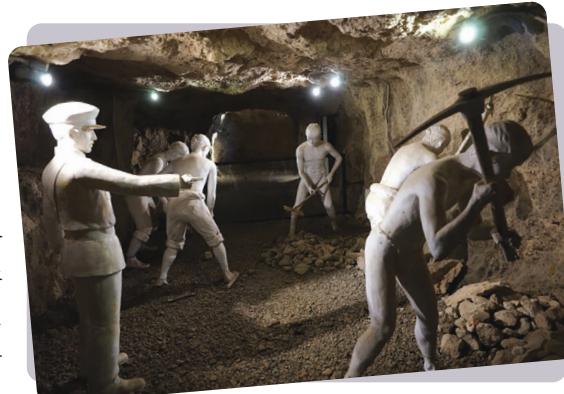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는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사회·역사·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 자긍심 및 유대감 고취를 위해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6박7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청소년들과 한국YMCA 각 지부에서 선발된 청소년들은 6박 7일간 동고동락하였다. 8월에 진행된 만큼 광복절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게 된 의미있는 모국 연수였다.

이번 모국 연수는 단순히 해외에 사는 참가자 뿐만 아니라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외국에 살았던 참가자들도 많았기에 다양한 재외동포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다. 현재 살고 있는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K – pop’과 한류 드라마를 이야기하며 친해져 갔다. 아직은 모두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첫 날, 첫 시작은 ‘웰컴 파티’였다. 대학생 자원

봉사 선생님들은 아리랑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참가자들의 단합을 이끌었다. 비록 만난 지 2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리랑 노래에 맞춰 끈끈한 친구가 되었다. 모국 연수의 목적은 체험과 경험 중심의 공동체 문화 활동을 통한 한국 사회, 문화, 역사를 이해함과 동시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 역사를 배우고 느끼기 위해 박물관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배정되었던 목포 그룹은 모국연수 3일 차에 목포 근대 역사 공간을 방문하였다. 그 곳에서 우리는 1944년 일본군 150사단 사령부가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유달산 방공호를 보았다. 방공호를 만들기 위해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한 일본인들 조각상을 보며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쓰라리기도 했다. 초등교육을 한국에서 받은 나 역시 이러한 사실이 마음 아팠지만, 이 비참한 역사를 처음으로 접

한 친구들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였다. 왜소한 한국인을 잘 차려 입은 일본 군인이 호되게 매질하는 조각은 우리 조상의 비참한 슬픔과 안쓰러움을 불러내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lab을 통해 우리는 한민족의 연합과 우리나라 문화를 접하는 활동을 하였다. 한 예로, 우리는 아리랑을 리믹스한 노래로 태극기를 들고 안무를 하는 활동을 하였다. ‘아리랑 ~ 고개를 넘~여간다’라는 부분을 태극기를 흔들면서 무대 위를 활보하며 우리는 유관순 열사가 느꼈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느낄 수 있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내 친구들과 나는 마치 삼일절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용감한 대한민국 시민 같았다. 우리는 독립 기념관에서 한국의 전통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팽과리를 울리며 다양한 색감의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이 모든 것이 묻혔으리라 생각하니 보다가 가슴이 갑자기 울컥해졌다. 또한 전시되어 있는 것 중 한국어로 156년 전에 쓰인 글을 보니 내가 평소에 부모님과 사용하

는 한국어가 다시 보였다.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만 여겨지던 것이 옛날에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우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또한,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뿌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문화를 지켜 주신 모든 독립투사분들께 마음으로나마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다른 활동으로 지구시민이해 그룹 활동과 자연 체험 활동을 목적으로 강당에서 조끼리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전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우리 조는 첫 번째 목표인 No poverty (빈곤퇴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토론을 하며 글로벌 리더의 입장에 서서 각각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국 연수 캠프를 통해 국내, 국외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하며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 동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훌륭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매년 6월 접수를 받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프로그램에 많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중, 고등학생 친구들도 지원을 해 보면 좋겠다.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3)

(전호에서 계속)

사. 법원의 가치분 결정서(Penetapan Sementara)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상표법”) 제 94 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 등록상표 보유자는 다음과 같이 상업법원의 판사에게 잠정처분 결정서를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유통시장 진입 금지 청구

상표법 제94조 a의 설명에, 유통시장 진입 금지는 상표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수입 금지도 포함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증거의 보존 신청

(3) 범법 혐의자에 의한 증거 인멸 금지 신청. 상표법 제94조 c 항의 설명에서 상표법 범법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4)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 범법 증거 청구

이 청구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요건을 첨부해야 한다.

(가) 상표권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상표법 제95조 a의 해설에서 상표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상표등록증서 (Sertifikat Merek)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상표권 침해가 있다는 초동 증거

(다) 증거목적으로 요청한 검색, 수집 및 확보한 상품 및/또는 문서에 대한 명확한 설명서. 상표법 제95조 c의 설명에서 상표 침해의 결과로 의심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잠정처분 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가치에 비례한 현금 및 또는 은행보증 형태 보증서 제출

(5) 상표법 제96조는 잠정처분 결정서 처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잠정처분 결정서 신청이 제9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업법원

의 서기는 잠정처분결정 청구서를 접수 기록하고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상업법원장에게 보고/이첩 해야 한다.

(나) 상업법원장은 잠정처분결정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를 조사할 상업법원판사를 임명한다.

(다) 임명된 상업법원판사는 임명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을 용인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라) 용인하는 경우에는 잠정처분결정서를 발부해야 한다.

(마) 잠정처분결정서는 발부일로부터 24시간 내에 법원의 잠정처분 결정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바) 잠정처분결정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각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사) 잠정처분결정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발부일로부터 최장 7일 이내에 잠정처분 결정 대상자를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

(아) 잠정처분 결정 대상자는 소환장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상표권 침해에 관한 잠정처분 결정에 관련하여 설명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아) 잠정처분 결정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업법 판사는 잠정처분 결정서에 대하여 재확인 혹은 취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자) 잠정처분 결정서에 대하여 재확인 판결이 난 경우에는, 보증금은 잠정처분 결정서 신청자에게 반환한다.

(차) 잠정처분 결정서 청구자는 잠정처분 결정서 대상자에게 상표침해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카) 잠정처분 결정서 청구자는 잠정처분 결정서 대상자를 상표권 범법 혐의로 경찰 혹은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법무부 지식재산권청)에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

(타) 잠정처분 결정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이 난 경우에는 잠정처분 결정 청구자가 법원에 건 보증금은 잠정처분 결정 청구 대상자에게 양도한다.



(파) 잠정처분결정에 관한 규정은 지리적 표시권 침해에도 꼭 같이 적용된다.

6.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형사)

가.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자

- (1) 법무부 지식재산권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자 및/또는 라이선스 보유자
- (2) 저작자 및/또는 라이선스 보유자
- (3) 전국 단위 집단 관리기관
- (4) 지역 단위 집단 관리 기관
- (5) 지식재산권협회
- (6) 지식재산권 보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7) 지식재산권 보유자 및/혹은 라이선스 보유자의 법정대리인

나. 형사 고발처

위조 상품에 대한 형사고발은 i).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방법과 ii). 법무부 지식재산권청 수사 및 해결국에 형사 고발하는 방법이 있다

- (1) 경찰(Polisi)에 형사고발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 만 있으며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경찰 조직은 행정구역을 따라 군대 조직처럼 중앙에 경찰사령부(Mabes POLRI)가 있으며, 주에 지방

경찰청(POLDA)이 있고, 시/군/구 단위에 경찰서(POLRES)가 있으며, 동/면단위에 경찰지서(POLSEK)가 있다. 경찰청장은 4성 장군인 경찰대장, 지방경찰청장은 소장, 경찰서장은 대령, 경찰지서장은 소령이다. 이 경찰 조직 중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사관이 있는 곳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이며 그 이하 조직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수사관이 없는 실정이다. 상표 침해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상표등록증 사본, 위조 상품 샘플 혹은 사진, 위배자 성명 및 주소 제출이 필요하다. 2016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에 규정된 가짜 상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0조

1.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된 상표 전체를 위조하여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 및/또는 유통한 자는 징역 최장 5(오)년 및/또는 벌금 최고 Rp.2,000,000,000.- (20 억 루뻬아)에 처한다.
2.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위조하여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 및/또는 유통한 자는 징역 최장 4(사)년 및/또는 벌금 최고 Rp.2,000,000,000.- (20 억 루뻬아)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물품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하거나 인명 사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징역 최장 10(십)년 및/또는 벌금 최고 Rp.5,000,000,000.00 (50 억루뻬아)에 처한다.

*제101조

-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전체적으로 동일한 지리적 표시를 위조하여 같은 종류 혹은 유사한 상품에 권리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자는 징역 최장 4(사)년 및/또는 벌금 최고 Rp.2,000,000,000.- (20 억루뻬아)에 처한다.
-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위조하여 같은 종류 혹은 유사한 상품에 권리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자는 징역 최장 4(사)년 및/또는 벌금 최고 Rp.2,000,000,000.- (20 억루뻬아)에 처한다

*제102 조

유통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가 제101조 혹은 제102조에 규정한 범죄 상품 혹은 서비스라는 것을 인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통한 자는 금고 최장 1(일)년 및/또는 벌금 최고 Rp.200,000,000.- (2억루뻬아)에 처한다.

*위에서 설명한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에 규정한 상표 혹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범죄는 일반범죄(Delik Umum)가 아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형사 고발을 하는 경우에만 국가의 수사권이 발생하는 친고죄(Delik Aduan)이다.

나. 경찰에 형사고발 처리 절차

(1) 형사 고발(Pengaduan Pidana)

피해자인 상표권 등록증서 보유자 혹은 라이센스 보유자는 본인 혼자서 형사고발을 하거나 법정대리인과 같이 고발할 수 있다. 형사 고발처는 지방경찰청(Polda) 혹은 경찰청 범죄수사본부



(Bareskrim Mabes Polri)의 경찰 종합봉사 센터(Sentra Pelayanan Kepolisian Terpadu /SPKT)에 위조 상품 범법 의심이 가는 사람을 형사 고발할 수 있다. 형사 고발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등록증서, 범죄 행위의 결과로 의심되는 상품 및 상표권 등록증서에 표기되어 있는 진짜상품 (등록상표)도 경찰에 제출해야 하며,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장소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이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내사(Penyelidikan)

형사 고발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Penyidikan)를 할 수도 있고 내사 (Penyelidikan)를 먼저 할 수도 있다. 통상 고소자를 먼저 조사하고, 피고소자와 참고인 혹은 증인과 증거물을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수사로 승격시킨다. 혐의가 인정되나 형법 상 범죄행위가 아니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내사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내사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피고발자는 고발자를 무고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인도네시아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의 도전과 과제 학술회의 개최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은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이하 우이대학교, Depok 소재)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과 우이대학교 한국어학과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이번 행사에 인도네시아 정부 부처 관계자 외에도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의 교수들과 한국어 교육 협회 및 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제공: 세종학당)



〈한인니문화연구원 제83회 열린강좌〉

표준 인도네시아어를 통해 본 “다양성 속의 통합”



박승현 (ACS Jakarta, G9)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열린강좌가 한인니문화연구원과 인도네시아 대학교 (Universitas Indonesia, UI) 사회정치학대학 (Fakultas Ilmu Sosial dan Ilmu Politik) 공동주최로 7월 29일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진행되었다. 엄강심 강연자는 표준 인도네시아어를 통해 본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이자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라는 1928년 청년의 맹세 이념에 맞춰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표준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가 미친 지대한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자에 따르면 표준 인도네시아어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속하는 말레이 언어 중 하나로 과거 몰라카 해협 상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15세기부터 지역 교통어로 자리매김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공용어로 자리잡았지만, 놀랍게도 1990년에는 표준 인도네시아어를 제1 언어로 간주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15.5%에 불과했고 70% 이상은 제2언어로 여겼다고 한다. 이는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문법, 어형 등이 현저하게 다른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환경에서 기인한다. 즉, 지역 토속 언어 (Bahasa daerah)를 가정 및 사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국어 (mother tongue) 혹은 제1언어로 이용하는 반면, 표준 인도네시아어는 공교육을 통해 학습된 제2언어로써 대중 매체, 정부 등 공적인 공간에서 사회적인 페르소나처럼 이용된다고 설명하였다.

1928년에는 약 4.9% 동인도 인구만이 제1언어로 이용하던 말레이 언어 중 하나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표준어로 선택하여 배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당시 약 47.8%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제1언어로 간주하던 자바어와 달리, 문법이 복잡하지 않고, 어떤 특정 지역과의 연고가 두드러지는 폐쇄적인 언어가 아니기에 한편으로는 모든 이들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개방성과 평등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채택되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3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종족들과 700개 이상의 언어는 서로 다른 인식론을 가지고 있고, 각 언어에 내재된 권력 관계 및 언어 이데올로기가 달라 대립할 수 있고, 번역에도 극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복잡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서 표준 인도네시아어는 이 모든 차이의 간극을 좁히는 교량 역할을 해왔다. 그 덕분에 종족, 언어, 종교 등이 무궁무진한 인도네시아가 “다양성 속의 통합 (Bhinneka Tunggal Ika)”이라는 국가 이념 하에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한다.

강연자는 니콜라스 하크니스 (Nicholas Harkness)의 자료를 활용해 인도네시아에서도 통용되는 Miss라는 단어가 그 호칭을 받는 한 개인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명시적, 암시적으로 전달하는지도 설명했다. 그리고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해 인도네시아 사례를 통해 분석한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을 인용해 인쇄 자본주의를 통해 표준 인도네시아어가 정식 교육 과정 및 대중 매체를 타고 전국에 확산된 배경을 이야기하며 표준 인도네시아어가 모더니티와 코스모폴리탄을 상징하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

강의 후 진행된 질의 응답 시간에는 열띤 토론에 가까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한국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표준어가 위계 서열이 두드러지지 않는 수평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연자는 제1 언어로 지역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사회적 계급 및 지위가 투영된 언어를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이질감 및 타성(otherness)을 줄이고 습득이 용이하게 하여 표준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한 국가에 속한다는 공동체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평등주의적으로 발전했다고 답변했다. 1928년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하에 어떻게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라는 이념이 생겨났는지 묻는 참가자도 있었다. 강연자는 본 질문이 본인의 연구 분야가 아니라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적 민족주의 이념 아래 단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등장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이념을 고안한 당대 많은 인도네시아 지성인들은 네덜란드로 유학을 다녀오거나 네덜란드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그들 사이에서는 상인들 중심으로 쓰이던 오늘날의 표준 인도네시아어를 낮게 보는 시선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어처럼 특정 지역의 우월주의를 피할 수 있는 중립적인 언어로서 독립 국가의 염원을 담아 열도의 모든 국민을 잇는 표준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엄강심 프로필:

하버드대학교 인류학과 박사수료

인도네시아대학교 (Universitas Indonesia) 인류학과 방문 교수

한인니문화연구원 객원 연구원

2022-23 스텐포드대학교 Hoover Institution Silas Palmer Fellowship 수상자

2023-24 Weatherhead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Dissertation Writing Grant 수상자 및 펠로우

2023-24 Harvard Mellon Urban Initiative Award 수상자

● 주요기관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관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해리티지인터넷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죠지언 퍼니쳐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 과 함께 가면
Since 1994
면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조Dam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 여행사
명가면옥	8990 4552	나래여행 5296 0749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미추홀	6583 1472	굿데이투어 4586 0598
산정(찌까랑) (땅그랑)	2909 3454 547 3172	그린관광 798 3322
서울	4585 4454	Red Cap 5797 3397
설악추어탕	2937 5435	Rodem Tour 4587 8833
감미옥	5579 4612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강나루	5576 8222	부미관광 7279 0011
강촌	5579 368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대가야	547 5511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명가면옥	552 2745	스카이투어 391 1381
산들	5579 5821	153 TOUR 5720 153
상하이	5573 5550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산해진미	5577 8182	코인관광 720 7230
서울일식	546 0840	하나관광 520 2450
아리수	0254-781 0059	호산여행사 691 3602
알리사	0254-60 1430	HAPPY TOUR 2950 8903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용대리 (SCBD)	021-5150 7734	사랑투어 2912 5099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 인니어통역/번역
	0811 887 5705 (WA)	Mrs. Lee 021 743 2687
우리들	552 4047	CITRA 781 7771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 의료기
청기와	0858 1377 3388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 인터넷
테라스 가든	8493 9321	HANASTAR INTERNET 2270 8282
한마당	5577 6770	S-Net 7080 7886
산정 까리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 인테리어
산정 까북	3005 1650	AEGIS BLIND 2943 3876
유가네	2221 3392	H2 Stuff 4586 7860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Living A&I 7278 0704
예원	021-7212-0533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찬찬	0812-1060-4848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숙달	0821-4007-7256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지원갈비	021-7212-0436	INNOMATE 7919 200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홍콩반점	0812-2442-6092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 운송 해운 이삿짐
한인포스트	4586 9199	소명통관 4585 9283
JAKARTA POST	530 0476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 안경원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콥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an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무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화

● 종/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흥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례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kan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 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021) 2245 5879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앤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뜨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찔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옥) 0811-951-762

반 등

반동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동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동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동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깔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김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동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정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혜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군)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김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 · 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개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 · 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동한인회 [022) 200-2154]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김 동 영	0811-2188-855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0-3332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10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두 현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1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



百年顧客



hotel facilities



Borobudur
Grand Ballroom



Rama
Ballroom I



Shinta
Ballroom II



Meeting Room
I - V



Fitness Club



Driving Range



Garden
Brasserie



Bunker
Cafe



Coffee Shop



Business
Center



Pool Bar



PUB



Swimming
Pool



Restaurant



Sauna & Spa



Money
Changer

Java Palace Hotel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 Jawa Barat
17530 Indonesia

reservation@palacejava.com

Telp: (62-21) 29281111

Fax: (62-21) 29287300

: info@palace.co.id

Benefit

혜택

고주동을포함한자바팔레스호텔내식음료할인

- 15% 할인주류포함

자바팔레스호텔스파

- 마사지 2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골프연습장

- 일반가격에서 3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헬스장, 사우나, 스파시설

- 1년간 무료이용

자바팔레스호텔객실

- 무료숙박권 3매 (주말, Superior Room, 조식 2인포함)
 - 숙박 50%할인권 2매 (주말, All Room type)
 - 숙박 20%할인권 6매 (주중 포함, All Room type)

Seruni Coffee Shop

- 생일당일무료생일케익제공
(사전예약필요)

Annual Fee
IDR. 4,500,000 nett

JOIN NOW

0001

privilege

Richard Chu

Member Since 8/15 Valid